真则从 소 속 대 변 지 제30호 【루계 제2604호】

주체 1 0 9 (2020)년 7월 2 5₉ 토요일 음력 6월 5일

절세위인의 향도따라 삼천리 강토우에 존엄높고 부강번영하는 통일강국을 일떠세우자!

경 애 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건설중에 있는 광천닭공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무력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건설중 에 있는 광천닭공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을 현지 에서 광천닭공장건설지휘부 일군들이 맞이하였다.

조선로동당의 원대한 구상에 따라 황해북도 황주군 광천리에 새로 건설 하고있는 광천닭공장은 맛이 좋고 품질이 우수한 알과 고기를 년간 수천t, 수천만개나 생산하게 되는 현대적인 닭공장이다.

조국의 번영과 인민의 행 복을 위해 언제나 만짐을 걸머지시고 고심어린 사색

헌신을 바쳐가시는 추켜세우는데 크게 이바지할 현대적인 인민대중제일주의정치를 높이 받들고 설비는 물론 건축물도 표준으로 되여야 -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이 닭공장건설 나 광천닭공장을 훌륭히 일떠세우리라는 닭굥장건설을 몸소 발기하시였다.

라에서 현대화되였다고 하는 닭공장들은 를 거두었다. 거의나 20여년전에 꾸려놓은 닭공장들로 면서 전국의 닭공장들을 현대화하는데서 대하여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본보기로 될수 있는 표준공장을 당에서 을 파견하여주시였다.

떨쳐나선 건설자들은 닭공장건물들의 한다고 하시면서 공사를 과학기술적요구 은 우리 당이 오래전부터 구상하고 많은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지금 우리 나 건축광사를 기본적으로 끝내는 성과 에 맞게 최상의 수준에서 질적으로 해야 품을 들여 준비해온 사업이며 당에서 전체 건설자들은 찌는듯 한 무더위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공사현장을 -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당에서 광천닭 해결에 실질적으로 기여할수 있는 공장 사를 다그치기 위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서 이제는 시대적으로 뒤떨어졌다고 하시 _ 돌아보시면서 _ 닭 공장건설진행정형에 _ 공장에 현대화, 자동화, 집약화수준이 월 _ 으로 크게 기대하고있다고 하시면서 모든 _ 주시고 필요한 모든 대책들을 세워주신

직접 맡아 건설할것을 결심하시고 강력 힘있게 다그쳐 짧은 기간에 많은 일을 설비들을 차리는데 맞게 건축공사의 질 재능을 남김없이 발휘하도록 하게 하여야 로 받들어 반드시 제기일에 완공의 보고 한 당내건설력량과 인민군군인건설자들 한데 대하여 만족을 표시하시면서 건설 을 철저히 보장할데 대하여 거듭 강조하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자들의 로력성과를 높이 평가하시였다. 시며 남은 공사를 일정계획대로 다그쳐

본보기로 건설되고있는 광천닭공장은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끝내기 위한 조직정치사업과 경제조직사

그토록 마음쓰는 인민들의 식생활문제 속에서도 건설장에까지 찾아오시여 공 등한 가장 선진적인 가금설비들을 일식으 _ 건설자 들이 우리 당의 숭고한 뜻을 경애하는 원수님의 크나큰 믿음에 무한히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방대한 건설을 로 보내주려고 한다고 하시면서 현대적인 받들어 건설사업에서 자기의 충실성과 고무되여 조선로동당의 높은 뜻을 실천으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광천닭공장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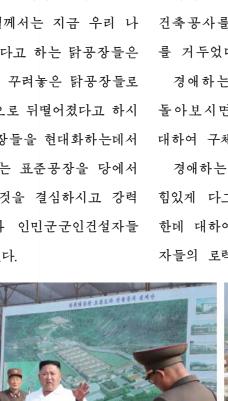
사료를 보장하는 농장들 도 농촌문화의 본보기단위 로 잘 꾸리는 사업을 병행 하여 립체적으로 밀고나가 며 이 농장들의 영농사업 도 잘 도와주어 앞선 농 장으로 추켜세워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운영단위에서 현대적인 닭 공장을 맡아볼수 있는 지 도일군력량을 강화하고 축 산부문 과학자, 기술자들 로 종업원대렬을 잘 꾸리 며 선진적인 설비들을 원만 히 다룰수 있는 기술자들 을 양성하기 위한 사업도 미리부터 예견성있게 해나 갈데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건설자들이 우리 어린이들 과 인민들에게 맛좋고 영양 가높은 고기와 알을 더 많

업을 힘있게 벌릴데 대하여 지시하시였다. 하기 위한 보람찬 건설투쟁에 적극 펼쳐

를 드릴 불같은 맹세를 다지였다.

본사기자















7.27

가는것은 세월이고 남는것 은 추억이라고 한다.

공화국이 지난 조국해방전 쟁에서 제국주의런합세력을 타승하고 전승의 축포성을 울린 때로부터 어언 67년의 세월을 가까이하고있다.

나라와 인민의 자주권과 운명을 수호하고 조선의 힘을 만방에 과시한 7.27의 기적은 세월이 흐르고 세대가 바뀌여 도 더욱 빛나고있다.

조국해방전쟁은 침략세력 들이 조선전선에 들이민 병 력과 화력기재의 밀도와 격 렬성에 있어서나 전쟁수법 의 야만성과 횡포성, 잔인성 에 있어서 인류전쟁사에 류 례없는것이였다. 당시 조선전 쟁의 도화선에 불을 단 도발 자들은 《아침은 해주에서, 점심은 평양에서, 저녁은 신 의주에서》라고 호언장담하였 다. 그만큼 공화국은 청소하 였다.

그러나 조선전쟁의 결과 는 세상사람들의 우려와 예 상을 완전히 뒤집어놓았다. 침략세력은 《조선을 통제하 기 위해서는 두개의 사단을 투입하면 충분하다.》고 떠벌 이며 72시간내에 조선을 정 복한다고 하였지만 악몽과도 같은 기나긴 2만 7 000여시 간(3년)이나 수많은 대소전 투들에서 인민군대에 의하여 참패를 면치 못하였다.

엄연한 력사적사실앞에서 적들은 전률하였고 진보적인 류는 조선을 영웅의 나라로 격찬하였다.

천재적군사전략가이시며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신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는 비범한 예지와 지략, 탁월한 령군술로 인민군대를 승리에 로 이끄시여 세계제국주의련 합세력을 타승하시고 7.27전 승신화를 창조하시였다.

전시의 그처럼 어려운 형편 에서 전체 인민을 불러일으 켜 전선과 후방을 하나로 련 결시키고 나라의 모든 군사 적잠재력을 전쟁승리에로 총 동원하여 강대한 제국주의련 합세력을 타승하신 그런 절 세의 위인, 전설적령장을 인류 력사는 알지 못하고있다.

전쟁의 첫 시기에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결정적인 반공 격으로 무력침범자들을 소 탕할데 대한 탁월한 전략 을 내놓으시고 인민군대를 조국수호전에로 불러일으키 시였다.

전쟁의 중하를 한몸에 지니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전쟁 3년간 수만여리의 화 선강행군을 이어가시며 독창 적인 지략과 탁월한 령군술 로 침략세력의 《강대성》의 신화를 산산이 짓뭉개버리시 였다. 주동적인 반공격전략 현대포위전의 모범창 제시, 조, 적극적인 진지방어전전 술구사, 갱도전, 비행기사냥 적후파괴조활동, 군조운동, 기동고사포병중대활동 등 모 든 군사지략과 전법, 전술은 천재적군사전략가이시며 강철의 령장이신 그이께서 만이 내놓으실수 있는 현대 전의 빛나는 전법들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조 하신 이 다양한 전법들은 풍 부한 전쟁경험에 기초하고 나 라의 지형조건과 인민군대 의 무장장비, 현대전의 특성 에 맞는 과학적인 전법이였 으며 수적기술적우세에 의존 하고있던 침략자들의 군사전 략을 파탄시키고 전쟁의 승 리를 안아온 중요한 요인으 로 되였다.

대전해방작전만 보아도 그이의 비범한 군사적지략을 다 알수 있게 한다.

대전은 령남과 호남지방 을 런결하는 군사적요충지였 고 당시 남조선의 림시 《수 도》였다.

금강의 《불퇴의 선》이 모 래성처럼 무너지자 적들은 대 전일대에 대한 방어에 집착하 였다. 하여 막대한 유생력량 과 무기, 전투기술기재들이 대전지역에 집중되였다.

바로 이러한 때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전선길을 헤치 시고 서울에 있는 전선사령 부에 나오시여 작전회의를 지도하시였다.

전선정황을 구체적으로 꿰뚫어보신 그이께서는 대전 해방을 위한 작전적묘술과 방 안을 구체적으로 가르쳐주시 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세워 주신 작전안에 따라 인민군

벽돌을 300만장 썼다고

하시며 그러니까 전쟁이 끝

나면 해마다 벽돌을 6억장 은 생산해야 한다고 하시였

다. 그이께서는 이런 방법으

로 복구건설계획과 그 예산

작성방법을 명철하게 밝혀

부대들은 대전에 대한 포위 를 형성하였으며 강력한 정 면타격과 함께 보병들로 구 성된 소부대들을 대전시내에 진입시켜 적의 내부를 혼란 시켰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내리신 총공격명령에 따라 인민군 부대들은 대전해방작전을 빛나게 결속함으로써 현대 포위전의 빛나는 모범을 창 조하였다

이 작전에서 인민군장병들 은 2만 4 220여명의 적들 을 살상포로하고 2만 80여 정의 저격무기와 150여문의 각종 포, 40여대의 땅크, 1 010여대의 장갑차, 자동 차를 파괴 및 로획하였으며 30여대의 비행기를 격추격상

하는 혁혁한 전과를 이룩하 였다.

이렇듯 전쟁 3년간의 매 일, 매 시각은 승리의 기적 과 위훈으로 수놓아진 나날 이였다.

하기에 세계인민들은 조국 해방전쟁을 승리에로 이끄신 위대한 수령님을 《희세의 영웅》, 《천하명장》, 《반 제투쟁의 승리의 상징》이라 고 높이 칭송하였으며 조선 인민의 승리를 《세계사적위 훈》, 《현세기의 기적》이라

고 격찬하였다. 7.27전승의 사변과 기적은 련전런승의 력사와 전통으로 이어져 추억은 더욱 아름답 고 자랑스럽다.

침략자들은 수치스러운

빛내이시고 공화국의 군력을 더욱 강화해주시였다. 공화국이 가장 어려웠던 고 난의 시기 위대한 장군님께서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어버이수령님의 전승업적을

는 독창적인 선군정치로 인 민군대의 위력을 더욱 강화 하시고 적대세력들의 침략의 팡증을 걸음마다 짓눌러버리 시였다.

그이의 탁월한 선군령도 가 없었더라면 이 땅에서 는 열백번도 전쟁이 터졌을 것이다.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은 말로써가 아니라 총대에 의 해 지켜진다는것이 7.27의 전 승신화, 반세기이상을 헤아리 는 적대세력과의 총포성없는 대결전에서 공화국이 찾은 진 리이다.

반공화국침략세력의 도전 과 위협책동에는 초강경대응 으로 대답하는것이 공화국 의 드팀없는 의지이고 배짱이다.

또 한분의 천출명장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아무 리 선량하고 정당하여도 힘 이 없으면 강자들의 흥정물 로 되고 피로써 이어온 귀중 한 력사도 한순간에 빛을 잃 게 된다고 하시면서 자기의 힘이 강할 때 조국의 안전 과 평화를 수호할수 있다고 하시였다.

오늘 그이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공화국의 군력은 날 로 강화되고있다.

중중첩첩 막아서는 시련 의 고비들을 강행돌파하여 오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애국헌신과 굴함없는 공격정 신에 의하여 공화국은 남들 이 수십년을 두고도 이루지 못한 군사적기적들을 짧은 기간에 다발적으로, 련속적 으로 이루어내여 세계적인 군 사강국의 지위에 당당히 오 르게 되였다.

비범한 군사적예지와 탁월 한 령군술로 자위적국방력을 비상히 강화하시는 위대한 천출명장을 모시여 공화국의 앞길에는 언제나 승리와 영광 만이 있게 될것이다.

본사기자 주일 봉

승리할 래일을 내다보시고

주체39(1950)년 11월 중 순 어느날이였다. 한 일군 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주신 과업을 받게 되였다. 내용 인즉 함경남북도의 중요공 체적으로 조사하도록 할데 장, 기업소들의 파괴정형을 알아보고 복구할 안을 세울

데 대한 문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물 론 지금 우리는 힘겨운 전 쟁을 하고있으며 전쟁은 장 기화되고 더욱 가렴해지고 있다고. 그러나 어느때 가 서든지 우리는 반드시 이길 출한 조사자료와 복구안은 것이며 승리한 조국강토에 그 계획반영에 요긴하게 쓰 더 큰 공장들을 지을것이라 이였다.

장 의 <u>어</u>

한 싸움이 벌어지고있던 주체42(1953)년 어느날에 있은 일이다.

일군들을 만나시였다. 그이께서는 그들에게 이제 합대학청사를 지을 때 소요

그 일군이 수십여일동안 에 걸쳐 함경남북도의 피해 정형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평양에 돌아왔을 때 이미 국가계획위원회에서는 전후 복구건설계획작성을 본격적 으로 내밀고있었고 그가 제

모든 전선들에서 치렬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최고사령부에서 경제부문 지 함께 타산해보자고 하시

고, 총을 만들어도 제손으 로 만들고 앞으로 공장을 복구해도 제손으로 해야 한 다고 하시며 피해정형을 구 대하여 이르시였다.

전쟁이 멀지 않아 끝나겠는 데 그렇게 되면 인차 복구건 설에 들어가야 한다고 하 시며 그러자면 해마다 벽돌 을 얼마나 생산하면 되겠는

우리 나라에 군이 200개인 데 한개 군에 한동씩 건설

하는것으로 보아도 200동은 건설해야 할것이라고 하시며 그렇게 보고 벽돌량을 타산 해보라고 하시였다. 그러시 고는 종합대학을 건설할 때 주시였다.

인재중시는 전화의 나날에도

다른 나라에 류학갔던 학 다고 하시였다. 생들이 조국해방전쟁시기 자원적으로 귀국하여 인민 군대에 입대하고 전선으로

어느날 이 사실을 아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최고 사령부와 교육부문의 해당 일군들에게 류학생들의 입 대와 부대배치를 당장 중지 시키고 그들을 빨리 되돌려 보내여 류학을 계속하도록 하라고 지시하시였다. 그러 시면서 오늘만 생각하고 래 일은 생각하지 않는가, 우 였다. 그러시면서 해방후 종 시련을 겪고있다 하여도 인

그로부터 며칠후 인민군대 의 각 군종, 병종사령관들 과 군사학교 일군들은 이미 입대한 류학생들을 즉시 제 대시켜 다시 돌려보내도록 할데 대한 최고사령관명령

어느날 위대한 수령님께서 는 다른 나라로 되돌아가는 류학생대표들을 만나시고 동 무들을 공부시키면서도 우리 는 전쟁에서 승리할수 있다 고, 전선에 대해서는 걱정하 지 말고 전후복구건설에 필요 리가 지금 아무리 어려운 한 선진과학기술을 많이 배워 가지고 오라고 당부하시였다.

탄원하였다.

재양성사업을 중단할수 없

을 전달받게 되였다.

본사기자

산을 위해 한사람같이 일떠 **섰던 후방의 녀인들…**

의 력사, 믿음의 력사이다.

그 사랑과 믿음에 의해 세 상에 하나밖에 없는 혼연일 체의 아름다운 화폭도 펼쳐 졌고 화를 복으로, 역경을 순경으로 전환시키는 놀라운 기적이 창조되였다.

령도자이시며 인민사랑의 최고화신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을 높이 모시고있다.

펼쳐갈것이다.

본사기자 김 철 진

김 영 일

7. 27! 명절의 거리에 아름다운 꽃들은

이 땅에 수놓은 전승의 환희인가 하늘땅 들썩하게 울리는 노래는 못 잊을 50년대 위훈을 전하는 추억의 메아린가

가슴에 훈장을 단 로병들에게 삼가 경의를 드리는 뜻깊은 날이여 이 땅을 지켜 피흘려 싸운 수호자들 그 넋들이 잠든 산과 들 그 어디에나 붉은 꽃 경건히 놓여지는 생각깊은 날이여

세월은 많이도 흘렀고 세대는 바뀌였어도 어찌 잊으랴 가렬했던 전화의 그 불비를 그리도 생을 아낌없이 바친 영웅들 승리, 오직 승리만을 위해 서슴없이 죽음도 맞받아나간 불굴의 용사들이여

승리란 무엇이던가 그것은 나라없는 노예로 또다시 살수 없어 총창을 억세게 틀어쥔 인간의 존엄이였고

수령님 주신 땅에 행복의 터전 가꾸어가며 그지없는 생의 희열로 높뛰던 가슴에 불타던 사랑

그렇더라 승리라 피의 결전에서 지켜낸 우리의 공화국 그것은 후대들의 웃음과 노래가 비낀 미래 우리의 모든 삶의 전부며 누리며 사는 행복과 기쁨 그 모든것

선전쟁의 쓰디쓴 교훈을 잊

고 정전은 휴식이다, 싸움

은 이제부터이다며 침략의

야망을 한시도 버리지 않

땅에서는 일촉즉발의 위기

가 조성된 때가 한두번이

그러나 그때마다 백두산악

같은 담력과 배짱을

지니신 천출명장의 탁월한

령도밑에 일당백의 강군으

로 자라난 인민군대의 불패

의 위력과 기상앞에 도발세

력들은 감히 침략전쟁의 불

을 지르지 못하고 주저앉고

백두산의 아들로 탄생하신

은 반공화국적대세력의

전쟁도발책동에 의하여

아니였다.

말았다.

전화의 용사들 안아온 그 승리 50년대의 그 전통은 오늘도 굳건하거니 영웅들에게 드리는 꽃을 경의라고만 하지 마시라 그들처럼 전승세대처럼 영원히 승리만을 떨칠 맹세가 어려있거니

지켜가리라 승리의 정신 이어가리라 승리의 전통 원수님따라 끝까지 가야 할 천만리길에 언제나 7.27! 이날만 있으리라 오, 우리는 승리만을 노래하리라

공화국이 지난 조국해방전 쟁에서 이룩한 빛나는 승리 는 위대한 김일성주석의 탁월한 군사사상과 령활무쌍 한 주체전법이 안아온 승리인 동시에 인민들과 군인들에 대 한 숭고한 사랑과 믿음이 낳은 승리이기도 하다.

사랑과 믿음으로 이긴 전쟁! 주체40(1951)년 11월 어 느날 한 일군으로부터 한 달동안에 적비행기를 5대나 쏴뗠군 나어린 영웅전사에 대한 보고를 받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높이 치하하시 면서 그 전사의 이름과 나이. 고향에 대하여 물으시였다.

전사의 부모형제들이 개 성에서 멀지 않은 적구에 서 살고있다는 사실을 아신 그이께서는 영웅전사의 가족 을 구출할데 대한 전투명령 을 구체적으로 주시면서 피 들을 위해 깊은 밤 군사지 제가 실시되고 평양의 여러 장의 로동자들, 전시식량증

흘려 싸우는 전사들을 위해 서라면 아까울것이 없다고, 로 보내라고 이르시였다.

그 사실을 두고 당시 여러

최고사령관 한개 런대를 풀

어 병사의 가족을 적구에서

후무한 일》, 《전쟁의 승리

조국의 한치의 땅도 내여

줄수 없다며 적의 우박치듯

쏟아지는 폭탄속에서도 굴함

를 달고 널리 보도하였다.

그뿐이 아니다.

나라 언론들은 《조선인민군 주도록 당부하신 사랑의 이 수령님의 사랑과 믿음은 전

사랑과

지체하지 말고 어서 런대를 키우고 두부도 만들어 먹이 적후에 있는 전사의 고향으 라고, 선기가 나는데 전투원

구출》, 《세계전쟁사에 전무 본적없는 화선휴양소를 내오

는 북조선의것》이라는 표제 기도 조국해방전쟁의 갈피들

없이 싸우는 1211고지 용사 불비속에서 전반적무상치료

들에게 더운밥과 국을 먹이 고 잠자리도 춥지 않게 해

야기도 있다. 병사들의 건강

을 위해 세계전쟁사에 있어

도록 하신 가슴뜨거운 이야

어느 한 농가에 드시여 집

주인이 올린 닭을 그대로 두

게 하시고 닭알까지 고스란

히 돌려주신 일화와 전쟁의

믿음의

에 새겨져있다.

휘관을 전화로 찾으시여 콩 곳에 지하시장들이 생겨나 을 보내주겠으니 콩나물도 게 된 사연을 비롯하여 가지 가지의 전설같은 이야기들은 오늘도 전승의 위훈과 더불 어 길이 전해지고있다. 하늘도 감복할 위대한

힘0

체 인민이 무적의 힘을 지니 고 용맹을 뗠치게 한 원동력

이였다.

불뿜는 적의 화구를 한몸 으로 막은 영웅전사들, 수 류탄묶음을 안고 적진을 향 해, 적땅크를 향해 맞받아나 간 육탄용사들, 더 많은 총 탄과 포탄을 전선에 보내주 기 위해 휴식이 따로없이 전 시생산에 떨쳐나섰던 군수공

전승의 신화를 창조하고 승리와 번영의 한길로 질 주해온 공화국의 력사는 절세위인의 인민에 대한 사랑

오늘 공화국은 탁월한

사랑과 믿음의 력사를 수 놓아오고 그것으로 강한 공 화국은 앞으로도 승리만을

경 애 하 누 얼 마 전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는 삼복철의 무더위도 마다 하지 않으시고 평양종합병원 건설장을 찾으시여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영상을 우러르며 온 나라 인민들이 다시금 뜨겁게 안아본것은 인민에게 바치시는 그이의 뜨거운 헌신의 세계이다.

언제인가 궂은비 내리는 먼길을 달려 동해의 포구를 찾으시고 어깨가 무겁도록 찬눈이 내려쌓이던 날에는 삼지연군(당시)건설장을 걷고걸으시던 원수님, 삼복 철무더위에 옷자락을 땀으로 황금해의 새 력사는 바로 화락 적시며 온실을 찾으시고 이렇듯 경애하는 원수님의 농장길을 걷고 또 걸으신 사 연이며 비물에 진창이 된 건 설장을 돌아보시던 이야기, 인민들에게 가닿을 물고기 대풍을 안아온것이 그리도 에서 위험한 철사다리를 한 만족하시여 평범한 바다가 계단, 또 한계단 오르시는 녀인들에게 허리굽혀 인사 경애하는 원수님의 모습을 하시고 차디찬 물고기랭동 잊지 못하고있다. 블로크도 귀한 보석을 대하 듯 쓸어만져보시던 잊지 못 2호발전소를 찾으신 날이 할 화폭…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인 민에 대한 멸사복무는 인민 의 요구와 리익을 실현하는

세상사람들은 공화국을 가

인민이 국가주권의 주인이

리켜 인민의 나라라고 한다.

되고 모든것이 인민을 위하

여 복무하며 인민대중의 무

궁무진한 힘에 의하여 발전

인민은 국가와 사회의 기

오늘 공화국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의

령도밑에 인민의 나라로 더

념은 인민대중제일주의이며

그이의 정치는 철두철미 인

민을 존엄높고 행복한 인민

으로 되게 하기 위한것이다.

하는 스승으로 여기신다.

그이께서는 인민을 하늘처 럼 신성시하시고 가장 숭상

최승희선생은 북과 남의

우리 겨레에게 잘 알려진 재

능있는 민족무용가이다.

욱 빛을 뿌리고있다.

하는 국가이기때문이다.

추이다

금의 재부도 아끼지 않으며 지어 생명도 서슴없이 바치 는 인민에 대한 끝없는 사 랑이며 헌신이라고 사랑넘친 말씀을 하시였다.

이 나라의 방방곡곡에서 우후죽순처럼 일떠서는 기념 비적건축물들과 신화적인 개 발속도로 행성을 진감한 주 체병기들의 성공폭음, 자 랑스러운 황금산, 황금벌, 희생적인 헌신으로 이룩되고 있는 값진 재부들이다.

사람들은 지금도 TV화면 으로 뵈웠던 현지지도의 길

그날은 그이께서 금야강 였다.

일군들에게 제기되는 문제 에 대하여 구체적인 과업을 주시던 그이께서는 언제쪽에 것을 최대의 중대사로 내세 시선을 얹으시며 저기로 올라 우고 인민을 위해서는 천만 가 보자고 말씀하시였다. 그 을 안아보고싶으시여, 인민

을 때에는 이 공장에서 생산

한 식료품들을 인민들이 좋

아한다는 사실을 아시고 인

러시고는 잠시 주위를 둘러 보시다가 조정지순회점검다리 로 올라가는 곳에 설치된 철 사다리를 띄여보시고 철사다 리가 있다고, 저쪽으로 올라 가자고 이르시였다.

매혹과 흠모

뜻밖의 말씀에 일군들은 당황함을 금할수 없었다.

그 철사다리는 발전소근무 성원들이 언제와 수문의 상 태, 수위 등을 감시하기 위 하여 순찰할 때 리용하는것 이였는데 경사가 매우 급하 고 협소하기 그지없었다.

일군들모두가 어찌할바 를 몰라하는데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벌써 철사다리 쪽으로 성큼성큼 걸음을 내짚으시는것이 아닌가.

《경애하는 원수님, 위험합 니다.》

철사다리앞에 이르신 그이께서는 일군들의 걱정을 눅잦혀주시려는듯 사다리를 몇번 당겨보시고는 더 만류 할 사이도 없이 올라서시였 다. 푸르른 저수지물결에 비 낀 인민들의 행복넘친 모습

순하게 보지 않으시였다.

그이께서는 인민들이 리용하

는 문수물놀이장의 시계가 멎

들에게 더 큰 기쁨을 안겨줄 전기강, 보배강의 출렁임소리 를 듣고싶으시여. 어찌 이뿐이랴.

나라의 국력을 최단기간 안에 최상의 경지에 올려 세울 응지를 안으시고 깊은 밤, 이른새벽에도 멀고 험 한 강행군길을 이어가시고 차디찬 바다물속에도 서슴 없이 들어서시며 조국과 인 민의 존엄, 후손만대의 번 영을 굳건히 지켜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이시다.

인민을 위한 현대적인 전 문병원들과 아동병원을 일떠 세워주시고도 우리는 여기에 만족할수 없으며 이같은 성 과들은 우리 당의 높은 리 상과 포부에 비해볼 때 큰 산속의 모래알에 불과하다고 하시며 평양종합병원건설에 바치시는 그이의 로고는 또 얼마인가.

격정과 눈물없이는 볼수 없 는 그이의 이런 심혈과 로고 의 길은 시작은 있어도 끝이 없는 애민헌신의 장정이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불같

용출구도 찾아내시고 폭염속

에서 인민들이 리용하게 될

새형의 무궤도전차와 궤도전

차의 시운전을 지도하시였다.

는 인민을 위한 헌신의 길

에서 삼지연시와 한적하였던

그이께서 끊임없이 걸으시

은 인민사랑과 헌신의 세계 를 안아볼수록 더욱 가슴 에 파고드는것은 지금으로 부터 9년전에 하신 그이의 뜻깊은 말씀이다.

어버이장군님께서 맡기고 가신 조국과 인민의 운명이 자신의 어깨우에 지워져있다 고 생각하면 아무리 일하여 도 성차지 않고 하루가 24시 간밖에 안되는것이 정말 안 타깝다고, 자신께서는 한생 어버이장군님의 혁명방식, 생 활방식을 따를것이며 이제부 터는 장군님을 대신하여 조 선의 첫 새벽문을 열것이라고 하시던 그날의 절절한 말씀이.

그날부터 근 10년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인민 을 위해 어느 한해, 어느 하 루도 편히 쉬지 못하시였다. 비오는 날에도, 눈오는 날에 도, 퇴약볕 내려쪼이는 날에 도 그이께서는 인민을 찾아 가시였고 인민의 만복을 꽃 피우시려 사색과 심혈을 기 울이시였다. 하늘의 별도 깊 은 잠에 든 이른새벽 그이의 집무실창가에서는 밝은 불빛 이 꺼질줄 몰랐다.

그 빛은 조선을 누리에 뗠 치는 빛이였고 이 땅우에 광 명한 미래를 앞당겨오는 찬란 한 빛이였다.

고 영 식

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14차 정치국 확대회의에서 도 국가비상방역사업을 더욱 **갓화하며 평양종합병원을 인** 민들에게 실지 최상급의 선 진적인 의료봉사를 할수 있 게 세계적수준으로 훌륭히 완공하는 사업을 다그칠데

가마포수산사업소 안강망선 1278호 부선장이였던 돈덕하 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도 잘 알수 있다. 1980년대초 바다에서 뜻하

지 않은 사고로 실종된 그가 73일만에 이웃나라의 앞바다 에서 발견되였다. 그때 그의 품을 헤쳐본 그

나라 사람들은 깜짝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세찬 풍랑속에 날바다를 표류하면서 수십여일이 지 └ 났지만 물 한방울, 습기 한

점 슴배여들지 못한 위대한

그가 늘 품고다니던 수 첩에는 이런 글발이 적혀 있었다.

수령결사옹위

정신은 준엄한

나날에나 평화로

운 나날에나 변

함없이 공화국인

민들의 마음속

에 간직된 숭고

한 정신세계이고

이 나라의 국풍

세상에는 나라

가 많다. 하지만

인민들이 자기

령도자를 끝없이

신뢰하고 받들면

서 정치사상적으

로, 목숨으로 옹

위해나서고있는

나라는 오직 공

위대한 수령

을 모시여 존엄

높고 행복한 인

민의 어제와 오

늘이 있고 후손

만대의 밝은 미

래도 담보된다는

것을 실생활체

헊을 통해 신념

으로 간직한 공

화국인민이기에

언제나 령도자

를 결사용위해나

평범하고 례사

롭게 흘러가는

공화국인민들의

생활속에 얼마나

순결하고 아름다

는가 하는것은

운것이 빛나고있

서고있는것이다.

화국뿐이다.

이다.

7

0

T

0

0

П

《위대한 수령님의 전사라 는 영광스러운 칭호는 누구 에게나 다 주어지는것이 아 니다. 그 영광스러운 칭호 를 빛내이기 위해서라면 내 한목숨을 서슴없이 바치리

이것은 비단 그 한사람만 이 아닌 공화국인민들 누구 에게나 간직되여있는 불같은 신념이다.

위급한 순간에 탈출하면 얼마든지 살수 있었지만 끝 끝내 비행항로를 바다쪽으 로 돌려 수령결사옹위의 숭 고한 정신세계를 보여준 길 영조비행사!

공화국의 력사에는 휩싸이 는 불길속에서 한목숨바쳐 구호나무를 보위한 무재봉의 영웅전사들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파도사나운 망망대해에 서. 횡포한 자연의 대재앙속 에서 백두산절세위인들의 초상화를 굳건히 보위한 신념 의 강자들에 대한 감동깊은 이야기들도 이루 헤아릴수 없 이 많다.

있었다.

무역짐배 《장진강》호 기 하지 않게 배가 침몰되는 위 한 정신적힘이다. 급한 시각 제일먼저 위대한

수령님들의 초상화를 안전하 게 모시였으며 38시간이나 홀로 풍랑사나운 날바다에서 표류하면서도 결사의 의지로 절세위인들의 초상화를 보위 하여 만사람의 심금을 울리 였다.

후날 그는 《살아서 못 가 면 죽어서라도 기어이 조국 의 품에 안겨야 한다고 생 각했습니다. 나의 품속에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초상화가 모셔져있었기때문입니다.》라

고 말하였다. 공화국인민모두의 가슴마 다에 억척으로 새겨져있는 자기 령도자에 대한 티없이 맑고 깨끗한 충성심.

그것은 결코 절로 생겨나 는것이 아니다.

이민위천을 필생의 좌우명 으로 삼고 인민을 하늘처럼 떠받들며 인민들이 바라는 것이라면 저 하늘의 별이라 도 따와야 한다는 투철한 인민관을 지니신 절세위인들 을 대를 이어 모시여 공화 국이민들은 영원히 그 품 에 운명도 미래도 맡기고 그 품을 지켜 자기의 청춘 도 생명도 아낌없이 바치는

이 수령결사용위의 정신은 지난해에는 또 이런 일도 신념으로 강하고 도덕의리로 숭고한 공화국인민들의 참다 운 정신세계이며 그 무엇으 관장 김명호는 바다에서 뜻 로써도 깨뜨릴수 없는 위력

것이다.

본사기자 유금주



무역짐배《장진강》호 기관장 김명호 (왼쪽에서 두번째)

민들이 좋아하면 좋은것이라 은것은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 고. 모든 평가의 기준은 인 는 일군들의 심장이 멎은 문 민들의 평가이라고 하시였다. 제로 보아야 한다고 하시였다. 그이께서는 무엇을 하나 해 경애하는 원수님의 인민을

놓아도 인민들의 편의를 최 우선, 절대시하는 원칙에서 경애하는 원수님의 정치리 모든것을 따져보고 실리에 맞게 하도록 하시고 하나의 제품을 놓고도 인민들은 엄 격한 검열관, 심사관이라고

어느해인가 문수물놀이 장에 설치한 시계가 한동 안 멎어 인민들에게 불편을 하기에 언제인가 금컵체육 준 일이 있었는데 경애하는 인종합식료공장을 찾으시였 원수님께서는 이 문제를 단

강조하신다

위한 정치는 인민에 대한 끊 임없는 헌신의 자욱으로 이

인민을 위해서는 한몸이 그 대로 모래알이 되여 뿌려진대 도 더 바랄것이 없다는것이 그이의 고결한 인생관이고 인 민을 위함이라면 뼈를 깎는 고생도 마다하지 말아야 한다 는것이 그이의 의지이다.

그이께서는 폭우속을 걸으 시며 양덕온천문화휴양지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조선

양덕땅이 인민의 락원으로 전변되였고 그 어디에서나 인 민들의 웃음소리가 높이 울 리고있다.

오늘 이 땅에 솟아오른 인 민사랑의 창조물들은 인민을 위함에 자신을 깡그리 바치 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무한한 헌신이 낳은 고귀한 결실이다

인민사랑의 정치가이신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그이의 정치는 인민을 위하

여 자신을 깡그리 다 바치시 는 숭고한 사랑이고 헌신이다. 오늘의 세계를 둘러보면 인 민을 한갖 정치의 대상, 정치 의 수단으로 보는 나라들에 서 수많은 사람들이 내전의 희생물이 되고있으며 살길을 찾아 피난길에 오르고있다. 그러나 인민을 위하여 멸

사복무하시는 위대한 령도자 를 모시여 공화국은 인민의 나라로 빛을 뿌리고있다.

본사기자 고성호

어져있다.

꽃 피운 재능있는 민족무용가

그는 일찌기 세계의 많은

나라들을 오가며 조선의 우 수한 민족무용을 널리 전 하였으며 자기의 피타는 노 화발전시키는데 적극 기여 하였다.

1911년 11월 서울에서 태 여난 그는 숙명녀자고등보통 학교(당시)를 다닐 때 공부 도 잘했고 노래도 잘하여 학 교에서 모임이 열리면 의례히

하다.

그는 고대로부 터 현대까지 조 선민족이 창조한 무용이라면 아 무리 작은것이라 고 하더라도 놓 치지 않고 다른 나라의것과 대비 해보면서 우리것 을 더 잘 살려 낼 방도를 모색 하였다. 그 바탕

그는 무대우에서 웃음을 머금고 민족무용의 우아한 동작들을 펼쳤지만 수난당하 아내여 조선민족무용발전의 위대한 김일성주석을 만나뵙 는 민족의 아픈 마음은 감출 나라가 해방되여 그에게도 고, 하루빨리 북반부로 들 일에 그처럼 바쁘신 가운데

데는 오빠의 영향이 컸다고 실시하면서 그의 희망은 실

번민에 휩싸여

최승희선생

준비를 끝내고 일행과 함께 마포를 거쳐 공화국의 품에

남포에 도착한 그는 세히 가르쳐주시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 자기와 일

리용할 건물도 마련해주신 을 수많이 창작공연하게 되 사랑에 대한 이야기였다.

《태양을 그리워하는 사람 지 일식으로 갖추어져있고 차고 진정한 인민의 품에 안 들》, 《해방을 구하는 사 독마다 흰쌀이 가득가득한 긴것만큼 우리의 기대에 어 아담한 살림집까지 받아안았 굿나지 않게 일을 잘하리라 을 때 그의 감격은 절정에 고 믿는다고 뜨겁게 교시 이르렀다.

《정로》에는 당시 최승희선 의 그 고매한 덕망과 뜨거 생이 터놓은 심경이 소개되 운 사랑과 믿음에 감격하여

김일성장군님의 령도밑에서 떤 어려움도 다 극복할수 있 우렁차게 전진하는 북조선의 정치, 경제, 문화건설의 위 서 적은 힘이나마 예술활동 들과 학생들에게 종종

주체35(1946년) 8월 4일 한 춤가락들을 하나하나 찾 최승희선생은 그처럼 그리던

어와 민주주의민족문화건설 서도 그가 사업하고있는 무 용연구소를 몸소 찾아주시 인민의 지향과 요구에 맞 치하에서도 민족무용의 기초 짓밟힌 조국, 망국의 설음에 무대에 올리였으며 끝없는 적극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해오던 조선민족무용의 기초 를 마련하는 사업을 계속하 최승희선생은 서둘러 출발 여 완성해나갈데 대해서와 무용가후비를 전망성있게 양 성하는 사업을 잘할데 대하 예술이 아니라 한갖 구경거리 여 그 방도에 이르기까지 세 에 불과한것이였다고 눈물에

최승희선생은 어버이수령님 《장군님, 어버이장군님품에 《우리 민족의 영웅 안기니 만시름이 놓이고 어 습니다.》 하고 거듭거듭 감 사의 인사를 드리였다.

그날의 감격을 자주 이야기 해주면서 자기의 솔직한 심 정을 털어놓군 하였다.

그는 세계의 많은 나라들 을 다니면서 직접 창작한 무 용을 공연할 때 적지 않은 고위인물들을 만났지만 그들 은 누구나 다 자기를 특이 한 춤을 추는 매력있는 무 용수로 보았을뿐 침략자에게 우는 우리 인민의 원한을 절 의 마음속 지향을 리해하려 하였다. 고도, 알려고도 하지 않았다 고, 그들에게 있어서 무용은

해방후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어머님께서도 무용연 구소를 5차례나 찾아주시여 최승희선생을 고무격려해주시 였다.

선생은 어버이수령님의 믿음 의 수도 부꾸레슈띠에서 진 속에 무용예술의 전반사업을 행되게 될 제4차 세계청년학 영하였다고 높이 평가해주시 맡아보는 조선무용가동맹 중 생축전에도 나갈 준비를 잘 앙위원회 위원장으로 사업하 하도록 거듭거듭 믿음을 게 되였으며 1946년 11월에 진행된 첫 민주선거에서 북 조선림시인민위원회 위원으 《북춤》, 《물동이춤》, 로, 1947년에는 북조선인민 《시내가에서》, 《장검무》 위원회 위원으로, 1948년 와 같은 민족성이 짙고 아 을 드리였다

으로 선거되였다.

해방후 그는 어버이수령님 의 당부를 언제나 잊지 않고 우리 인민이 좋아하는 춤, 새 사회건설에 나선 인민들 에게 힘과 용기를 주는 무 용작품창작에 전심전력하여 《농악무》, 《칼춤》, 《봄 타령》, 《풍년맞이》 등을 고심과 탐구를 기울여 새로 절하게 호소하려고 나선 자기 운 형식의 무용작품을 창작 조국해방전쟁시기에도 무

용극 《조선의 어머니》를 지도하여주시였다. 창작하여 싸움에 떨쳐나선 인민들과 군인들을 적극 고 무추동한 최승희선생의 성 과를 높이 평가하여주신 그가 양성한 청년배우들을 1951년 제3차 세계청년학생 축전에 참가하도록 하여주시 안겨주시였다.

최승희선생은 《농악무》,

품들을 가지고 축전에 참가 하였다. 그들은 종목마다에서 영

름다우며 힘있는 민족무용작

예술적기교로 남김없이 보여 한 사업에 크게 기여하였다. 줌으로써 높은 평가를 받았 으며 독무 《장검무》는 축전 의 특등상을 수여받는 성과 를 거두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국해방 10돐 경축공연무대

녀자의 몸으로 왜적을 물리 였다.

《조선민족무용기본》(1, 2) 을 집필하여 내놓아 8월에 세상을 떠났다. 어버이수령님께 또다시 기쁨

어버이수령님께서는 그에 다고 하시며 세상에 나라도 주군 하시였다. 많고 민족도 많지만 자기의 무용기본을 가지고있는 나 는 최승희선생의 공로를 귀중 라나 민족은 별로 없을것이 히 여기시고 영원히 빛내주시 라고 하시였다. 그러시면서 기 위하여 그의 유해를 애 일제의 민족문화말살책동에 국렬사릉에 안치하도록 은정 도전하여 유구한 우리 민족 깊은 조치를 취해주시였다. 무용을 발굴하고 체계화하 하나 찾아내여 정리하고 그 에 서있다. 것을 가지고 현대민족무용

의 기초를 쌓았다고, 참으 로 수고가 많았다고 치하해 주시였다.

이처럼 위대한 수령님께 기쁨을 드린 그는 그후 런이 어 《조선아동무용기본》(1, 2)도 집필하였고 《무용극대 를 비롯한 도서들과 수많은 론문들도 집필하여 신문과 잡지들에 소개함으로써 우 응적조선인민의 기상을 높은 리 나라 무용예술발전을 위

어버이수령님께서는 회고록 《세기아 더불어》에서 최승 희선생에 대하여 회고하시면 서 1920년대와 1930년대는 왜색왜풍의 탁류속에서 시 주체44(1955)년 8월 14일 들어가는 민족성을 고수하 고 민족적인것을 발전시키려 에 올린 무용극 《사도성의 는 강렬한 모대김이 문학예 이야기》를 몸소 보아주시고 술의 여러 분야에서 분수처 럼 솟구쳐오르던 때였다고. 그이께서는 주인공 금이가 바로 이 시기에 최승희는 조 선의 민족무용을 현대화하는 치기 위한 결전장에 탄원하 데 성공하였다고, 그는 민간 여나선 장면에서 제일먼저 무용, 승무, 무당춤, 궁중 어버이수령님께서는 그와 박수도 보내주시면서 무용극 무용, 기생무 등의 무용들 《사도성의 이야기》는 왜적 을 깊이 파고들어 거기에서 의 침략으로부터 조국을 지 민족적정서가 강하고 우아한 켜싸운 선조들의 슬기와 용 춤가락들을 하나하나 찾아내 1946년 10월 13일 최승희 였고 1953년 8월 로므니아 맹을 잘 보여주었다고. 그 여 현대조선민족무용발전의 들의 애국주의정신을 잘 반 기초를 마련하는데 기여하였 다고 쓰시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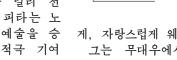
> 우리 민족무용예술의 기초 그는 그후 우리의 민족 를 튼튼히 닦아놓았을뿐아니 무용을 종합체계화한 도서 라 무용후비육성에서도 큰 공로를 세운 그는 1969년

>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그가 세상을 떠난 후에도 무용예술에 대 게 우리 인민의 자랑할만 하여 이야기할 때마다 최승 한 훌륭한 국보를 마련하였 희선생을 감회깊이 회고해

> >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절세위인들의 현명한 령도 기 위해 조국의 방방곡곡 의 손길아래 날로 더욱 개화 을 찾아다니면서 예로부터 발전하는 민족무용과 더불어 내려오던 춤가락들을 하나 그는 오늘도 영생의 언덕우

본사기자



수 없었다.

독창을 하군 하였다.

에는 민족의 넋을 지키고 억 세계 살려나갈 의지와 식민 화국북반부로 들어가야 한다 것은 자기를 위해 평양에 는 민족무용의 춤동작에 기 지노예살이를 하는 자기 민 족에 대한 동정과 사랑이 깔 려있었다.

최승희선생은 1930년 1월 《동아일보》와 《매일신보》 의 후원하에 서울 경성공회 당에서 첫 공연의 막을 올 렸다

관중은 민족성이 짙고 우 아한 그의 첫 공연에 완전 히 매혹되였고 우리의 민 족무용의 훌륭함과 아름다 운 미래에 찬탄을 아끼지 않았다.

일제는 최승희선생을 빌어 제놈들의 위상을 돋구기 위 하여 《샤이쇼끼무용단》이 라는 이름을 달고 공연하라 7월 어느날 그는 뜻밖에도 고 강박하여나섰다.

요를 물리치고 《최승희무용 단》) 으로 세계 각국에서 순회

다. 그러나 외세가 다시 남 에 참가하여 지난날 그처럼

밝은 앞길이 열리는듯 하였 이런 그가 무용을 하게 된 조선을 강점하고 군정통치를 소망하던 민족무용을 우리 여 그가 악독한 일제의 통 망으로 바뀌여지 게 더욱 발전시켜나가는데 를 마련하였다고, 지금까지 게 되였다.

> 있던 그는 당시 조선인민당 당수 로 명망이 높았 던 려운형선생을 찾아가 만나게 되였다. 그를 만

서 희망을 꽃피 우자면 영명하신 였다. 김일성장군님의 품을 찾아 공 고 뜨겁게 말해주었다.

사실 최승희선생도 해방전 민족의 태양으로 청송받고 위대한 수령님의 은정깊은 면 우리의 무용예술은 더욱 계시는 어버이수령님에 대 한 소문을 자주 들었고 그이께서 이끄시는 항일무장 며 사무실과 응접실, 넓은 화발전하게 될것이라고, 나 투쟁내용을 무용작품에 담기 훈련장… 위해 노력도 많이 했었다.

람들》, 《폭풍우를 뚫고》, 《녀성이여, 강하다》, 《미 래는 청년의것이다》 등과 같은 무용들이 다 그러한 취지에서 만들어진 작품들

이였다. 이러한 때인 주체35(1946)년 여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자기에 하지만 그는 단호히 그 강 게 보내주신 편지를 받아안 게 되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편지 대한 성과를 볼 때 북조선에 공연을 하였고 자기들이 조 에서 그가 지난날 일제의 선의 무용가라는것을 떳떳하 민족문화말살정책에도 굴하 에 참가하게 된것을 행복으 어버이수령님을 만나뵈옵던

않고 민족의 넋과 절개 를 지켜 우리 민족의 고유 기초를 마련하고 세계앞에 는 영광을 지니였다. 시위한데 대해 잘 알고있다

쓰시였다.

안기였다.

더우기 그를 놀라게 한 키워 그들이 인민이 좋아하

1946년 8월 7일부 신문

어버이수령님께서는 나라

그러시면서 우리의 무용예 난 러운형선생은 행을 마중하도록 은정어린 술을 믿음직하게 떠메고나갈 매우 반가워하면 조치를 취해주셨다는 소식 무용가후비를 양성하는 사업 을 듣고 감격에 목이 꽉 메 을 전망성있게 해나가야 한다 고, 유능한 무용가들을 많이 《최승희무용연구소》로 초하여 우수한 무용작품들 찬란히 발전하게 될것이며 민 학생들이 기숙할 방들이 주주의민족문화도 그만큼 개 는 선생이 반동파들의 온갖 거기에 가구와 부엌세간까 회유와 책동을 대담하게 박

하시였다.

그는 무용연구소 교원

젖어 이야기해주군 하였다.

무용극《사도성의 이야기》의 한 장면

최근 일본이 막대한 자금 을 억제수단으로 가지는게 중 을 탕진하며 군사대국화에 열을 올리고있다.

언론들이 밝힌데 의하면 일본은 앞으로 231억US\$ 의 자금을 들여 미국으로 부터 《F-35A》 63대와 **《**F−35B**》** 42대 등을 끌 어들인다고 한다. 한편 일본 은 얼마전에 공개한 2020년 《방위백서》를 통해 《새로 운 안보환경에 대응하고 일 본의 공중과 해상접근을 보 호하기 위한 조치》를 떠들면 서 직승기호위함(구축함) 이 즈모함과 가가함을 개조하여 《F-35B》를 운용한다고 밝 혔다.

이뿐이 아니다.

극초음속공대함미싸일개발을 2030년까지 끝내는것을 목표 로 본격적인 작업에 들어갔다 고 한다. 그런가 하면 《적 미싸일기지를 타격할수 있는 무기를 획득하는것은 일본이 고려할 선택사항이다.》, 《적 기지를 공격할수 있는 능력 기한다고 되여있다.

최근 남조선에서 검

지휘권문제를 둘러싸고

검찰과 보수언론의 유착의

혹사건은 법무연수원의 한

연구위원이 대검찰청 반부패

강력부장으로 있던 지난 3월

고 금융사기죄로 수감중인

죄수에게 《로무현재단》 리

도록 한 남조선검찰패들의

수사지휘권까지 발동하는 등

압박의 도수를 높여왔다.

부정부패사건이다.

요하다.》면서 토마호크미싸일 을 가져야 한다고 떠들고있다 고 한다.

이러한 속에 얼마전 일본 륙상 《자위대》가 수직리착륙 수송기 2대를 배치하고 앞 으로 17대를 끌어들이기로 하였다고 한다. 이 수직리 착륙수송기는 《일본판해병 대》라고 불리우는 륙상《자 위대》 수륙기동단을 수송하 는 임무를 맡게 된다고 한 다. 수륙기동단은 지난 2월 미해병대와 오끼나와 미군훈 련장에서 첫 련합훈련을 벌 렀다고 한다. 이것은 일본이 해병대를 창설하고 상륙작 전준비도 강화하고있다는것 일본은 지난해에 착수한 을 보여주는 단편적인 실례

> 또한 일본이 배치하거나 개 발중인 스렐스전투기나 경항공 모함. 극초음속공대함미싸일 등은 모두 공격무기들이다.

다 아는것처럼 일본헌법에 국제사회에 도전하여 《자위 는 국가가 전쟁할 권리를 포 대》를 완전한 공격형무력으 뿐이다.

일본헌법 9조 1항에는 의 재침야망이 이미 한계점 《전쟁과 무력에 의한 위협 을 넘고있음을 시사해준다. 또는 무력의 행사는 국제분 지금 일본은 독도를 비롯 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는 하여 조선반도와 그 주변나 영구히 포기한다.》고 되여있 라들의 섬들에 대한 《령유 다. 또 2항에는 《륙해공군 권》을 주장하면서 침략의

및 기타 전투력을 보유하지

않으며 국가의 교전권을 인

정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이에 따라 일본은

군대가 아닌 《자위대》를

보유하고있다. 그것도 《자

위대》는 《침공한 적을 령

토에서만 군사력으로 격퇴》

하는데만 쓰겠다는 《전수방

위원칙》에 기초하고있다. 이

아닌 현대적인 공격용무기들

로 장비하고있는것은 일본에

있어서 《평화헌법》과 《전

수방위원칙》이란것이 이제는

한갖 허울에 지나지 않는다

군대보유, 참전권, 교전권

을 박탈당한 전범국 일본이

로 재편성하고있는것은 일본

러한 《자위대》가 방어용이

구실을 찾고있다. 피묻은 독사의 이발을 드 러내놓고 《대동아공영권》 의 옛꿈을 기어이 실현해보 려는 일본의 위험한 무력증 강책동은 그들이야말로 지역 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암적존재이라는것을 명백히 실증해주고있다.

적국의 오명도 벗지 못한 일본이 또다시 분별을 잃고 재침의 길로 줄달음치는 위 험천만한 행태는 지난날 일 제의 침략으로부터 온갖 고 통과 불행을 당한 아시아인 민들과 세인의 우려와 규타 을 불러일으키고있다.

일본의 무분별한 군국화책 동은 섶지고 불속에 뛰여드 는 어리석은 자멸행위로 될

본사기자 한복순

찰의 기반이 무너지고

권야망이 물거푺으로 될수 있

다는 극도의 불안과 공포로

부터 검찰개혁을 어떻게 하

나 가로막기 위해 필사적으

그러나 이미 검찰적페세력

에 대한 민심의 심판은 내려

졌고 검찰개혁은 막을수 없

지금 남조선 각계층은

《검찰개혁은 시대적요구이

다.》, 《정치검찰 퇴치하고

검찰개혁 실현하자!》, 《적

페청산을 통해 사회개혁을

실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면서 굣곳에서 검찰개혁

을 요구하는 투쟁을 벌리고

있다. 인터네트에는 《초불의

명령이다. 검찰개혁 이루어내

자》, 《윤석열 사퇴》, 《검

찰개혁 완수》라는 글들이

적페세력들이 민심에 도전

하여 발광할수록 그것은 스

스로 파멸의 함정을 파는 결

남조선에서 정의와 민주주

회적진보와 민주개혁을 가로

막는 적폐세력들의 발악적

책동을 수수방관하지 않을

최 정 찬

것이다.

과밖에 가져올것이 없다.

로 발악하고있는것이다.

는 흐름으로 되였다.

릇을 하고있다. 찰과 보수언론의 유착 의혹사건에 대한 수사 및 심 이 요구하는 것은 하기에 보수패당은 저들의 진때가 묻은 검

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법무부와 검찰사이의 갈등과 검사장회의》를 벌리며 검찰 검찰은 파쑈독재의 대명사로 적폐청산이 본격화되면 재집 악명을 떨치였다.

대립이 보다 격화되고있다고 내부의 의견을 수렴한다. 검 찰계의 원로급인물들로부터 자문을 받는다 하면서 대응 책마런을 위해 부산을 피워 대는가 하면 법무부에 매일 과 같이 절충안을 제기하면 《동아일보》소속 기자와 짜 서 수사지휘권문제를 타협해 보려 하였다. 그러나 윤석열 은 수사지휘권을 계속 고집 사장 류시민 등 여권관계자 할 명분이 없고 법무부 장관 들의 뢰물혐의를 허위증언하 이 타협할 기미를 보이지 않 자 더이상 뻗쳐대다가는 더 욱 수세에 몰릴수 있다고 타 이와 관련하여 법무부는 산하고 지난 9일 일단 수사 지휘권을 포기하였다.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로 하지만 법무부와 검찰사이 의 불신은 여전히 남아있으 사실관계를 밝혀내도록 하였 으며 검찰개혁에 반기를 들고 며 《미래통합당》을 비롯한 뻣뻣하게 놀아대는 윤석열을 보수패당은 검찰개혁은 《검 찰죽이기》이라고 고아대면 비롯한 검찰적페세력에 대한 검찰총장 윤석열은 수사지 있다.

회권발동과 관련하여 《전국

력대로 반역통치배들의 편

다 아는바와 같이 남조선 의 재집권을 위한 돌격대노

에 서서 자주, 민주, 통일

을 요구하는 각계층 인민들 의 의로운 투쟁을 무자비하 게 탄압하고 민주주의와 인 권을 처참히 유린하며 진보 와 개혁을 집요하게 가로막 은것도 남조선검찰이다. 세 인을 경악케 한 통합진보당 의 강제해산과 《자주민보》 의 폐간, 전교조의 합법적 지위박탈사건은 독재《정권》 의 시녀가 되여 권력을 휘두 르며 진보민주세력을 가혹하 게 탄압말살해온 검찰패거리 들의 죄악을 낱낱이 폭로해 주고있다. 최근에도 이자들 은 《미래통합당》 것들의 부 추김밑에 진보개혁적인 인사 서 검찰적폐무리를 싸고돌고 들을 부정추문사건들에 걸 어 하나둘 제거하면서 보수

재밥에만 신경쓰는 밤멱담 남조선에서 얼마전 《미래 가는 정치계에서 완전히 밀 한 장외투쟁에 골몰하고있 □의를 사랑하는 각계층은 사

통합당》이 《국회》에 복귀 하였다고 한다. 저들이 요구 《국회》 상임위원장자 리를 내놓으라고 앙탈질을 하면서 《국회》문을 박차고 나간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다

민심의 심판을 받고 파멸 의 함정에 빠져 한숨만 쉬 며 어제까지만 해도 《너희 들끼리 다 해먹으라.》고 맥 빠진 소리만 줴쳐대며 《국 회》 출석을 거부하던 《미래 통합당》이다

려날 위구싞으로 하여 《국 회》에 복귀하였다고 평하고

비단 이것때문만이 아니다. 지금 《미래통합당》은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문 제. 종합부동산세법개정문 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출 범문제 등을 놓고 여당과 옥 신각신하고있다고 한다.

이것이 권력탈취에 유리한 분위기를 마련해보려는 《미 래통합당》의 비렬한 정치적 행위라는것은 더 말할 필요 《미래통합당》의 태도변화 가 없다. 여론들과 각계에서 《보이꼬트 안한다며 복귀한

를 두고 분석가들은 《미 래통합당》이 더이상 뻗치다 통합당이 사실상 집권을 위



《미래통합당》 해산을 요구하는 남조선인민들

다.》고 하면서 정쟁만 일삼 는 《미래통합당》에 대한 비 난과 단죄의 목소리를 높이 는것은 결코 우연한것이 아

> 재에는 관심이 없고 재밥 에만 정신이 팔려있다고 《미 래통합당》의 《국회》복귀는 사실상 민생을 돌보자는데 있는것이 아니라 저들의 더 러운 권력야욕실현을 위해서 이라는것이 여실히 드러나고

> > 민의와 민생은 아랑곳없이 《국회》를 한갖 정치적야욕 실현을 위한 도구로밖에 여기 지 않는 《미래통합당》이다. 그러다보니 《미래통합당》은 《국회》를 객주집 드나들듯 하면서 사대매국과 반인민적 정치에만 매여달리고있다. 그 로 인한 피해가 고스란히 인 민들에게 쏟아지게 될것은 뻔하다.

> > 남조선 각계에서 하라는 정치는 하지 않고 제 리속 만 차리려는 《미래통합당》 을 당장 해산하라는 목소리 가 날로 높아가고있는것은 민심의 분노가 어느 정도인

> > 가를 잘 보여주고있다. 본사기자 안권일

남조선 대전시민단체들

친일적페무리들의 망동을 강력히 규탄

남조선언론들의 보도에 의 하면 얼마전 대전시안의 시 선엽을 비호하는 보수패거리 들의 망동을 강력히 규탄하 는 투쟁을 전개하였다.

민족문제연구소 대전지부, 《대전민중의 힘》을 비롯한 열고 《재향군인회》, 《성우 회》 등 극우보수패당이 백 선엽을 《영웅》, 《가장 존

경하는 군인》으로 미화하는 추태를 부린데 대해 《친일 적페무리들의 망동》, 《국민 에 대한 모독》으로 강력히 단죄하였다.

저질스러운 민심유혹의 광대 극을 또다시 펼쳐놓고있다.

지난 20일 보수패당은 이 른바 당의 새 정강초안이라 는것을 발표하였는데 여기 에 수십년간 적폐정당의 기 존정강에는 언급되지조차 않 았던 내용들이 포함되여 사 람들을 어리둥절케 하고있다 고 한다.

한두가지 꼽아본다면 《5.18민주화운동을 포함한 거나 《일할수 있는 권리 보장》, 《일하는 사람이 존 중받게 한다.》는 문구 같은

날 공개된 정강을 바탕으로 앞으로 《국민공모》를 통한 당명과 당의 상징색 등도 모 모습》을 보이겠다고 흰소리 를 치고있다고 한다.

란

의 유치한 발버둥질이라 해 야 할것이다.

주, 통일을 위한 의로운 투 쟁에 나선 남조선인민들을 총칼로 야수적으로 탄압하 고 학살해온 독재세력이다.

민주화운동정신을 계승》하 뿌리로 보나 줄기로 보나 력이다.

사실 《미래통합당》을 비 롯한 보수패당은 자주, 민

올데갈데 없는 파쑈독재세

남조선인민들의 4.19봉기 나락에 빠진 가런한 처지 이길이 이어질수 있도록 하 워온 렬사들에 대한 참을수

정강초안에 《조국근대화정 신》을 쪼아박으며 《유신》 독재자를 또다시 찬미해나선 것도 그 뿌리는 저들도 부 정하지 못한다는것을 말해주 고있다.

독재와 민주는 한바리에 실을수 없다.

까마귀의

이런자들이 지금에 와서 《미래통합당》 패들은 이 해서 파쑈독재, 동족대결, 반인민적인 당의 근본체질이 조금도 달라질수 있겠는가.

두 바꾸어 완전히 《달라진 에 의해 거꾸러진 독재자를 두고 《리승만의 업적이 훼 손되지 않고 그 정신이 길

남조선인민들이 줄기차게 요구해온 민주화를 부정하 댄다고 해서 민심을 등진 고 총칼과 땅크의 무한궤도 반역당의 체질이 조금도 달 로 짓밟아온 리승만, 박정 정강이나 한두절 보충한다고 희, 전두환의 후예들이 감히 4월인민봉기, 광주인민봉기, 6월인민항쟁을 비롯한 의로운 정신을 파쑈독재자들의 《업 적》, 《정신》과 함께 계승 한다고 새 정강초안에 나란

로 사회의 민주화를 위해 싸

남조선의 《미래통합당》이 를 구해보려는 적폐무리들 겠다.》고 떠드는것이나 새 없는 모독이고 남조선인민들 을 우롱하는짓이 아닐수 없 는것이다.

[4]

《미래통합당》이 《변화》 를 떠들면서도 새 정강초안 에 동족에 대한 적대감과 외 세를 등에 업은 《흡수통 일》기도, 외세굴종적립장과 자세를 명백히 찍어밝힌것은 결코 변할래야 변할수 없는 이 반역당의 정체를 더욱 드 러내보이고있다.

현실은 《정강》이나 보충 하고 《혁신》나발을 불어 라질수 없음을 까밝혀주고 있다.

까마귀가 흰 칠을 한다고 해도 백로가 될수 없다.

《미래통합당》은 영원히 변할수 없고 변하지도 않 는 보수적페의 상징일뿐이라 히 명시하였으니 이것이야말 는것이 남조선 각계의 평가

천정부지로 뛰여올라 집 없는 사람들의 설음을 더 해주고있다고 한다.

뛰여올라 최근 2년사이에 40%나 폭등하여 지난 시 기를 릉가하였다고 한다.

남조선주민들이 주택을 마련하는데는 무려 40여 년이라는 세월이 걸려도 모자란다고 한다.

갈수록 악화되는 집문 제로 하여 20~30대는

절망감, 40대는 신혼시절 에 구입한 좁고 낡은 주 택에서 벗어날수 없다는 서울시의 경우만 놓고 분노감, 50대는 집문제로 보더라도 해마다 집값이 어려움을 겪고있는 자식 들을 보며 허탈감에 빠져 들고있다고 한다.

> 반면에 여러채의 집을 가지고있는 사람들은 투기 행위를 일삼아 수십만US\$ 의 리득을 얻고있는것으 로 하여 빈부격차가 더욱 심화되고있다.

지난 3월 남조선언론 등집 아닌 《집》에서 생

남조선에서 주택값이 제 집을 마련할수 없다는 이 전한데 의하면 주민 활하고있는 형편이다. 세대수의 41%에 달하는 816만세대가 제 집이 없 이 생활하고있다고 한다.

> 주택을 사리사욕과 치부 고 투기와 협잡행위에 열 제하지 못하고있는것으로 하여 절대다수 근로대중 은 자기 집을 마련할 엄두 도 내지 못하고 세방살이 를 하거나 움막집, 짐함집

부자들과 특권층들이

이를 두고 외국의 언론

들은 최근 주택수요와 공 급의 불일치, 광범한 투 기로 하여 《수도권》지역 의 주택값이 껑충껑충 뛰 를 위한 주요수단으로 삼 여오르고있으며 이로 인 한 타격은 제일먼저 평 을 올리고있지만 이를 규 범한 서민들에게 가혹하 게 가해지고있다고 평하 고있다.

> 남조선에서 집없는 사 람들의 한숨소리는 날로 더욱 높아가고있다.

> > 본사기자 김 영범

남조선에서 부동산시장 사회는 다주택자들과 부 이 혼란에 빠지고 집값 이 부쩍 오르면서 인민들 의 생활이 더욱 악화되고

있다고 한다. 지금 남조선에서는 극 소수의 돈많은 특권족속 들이 부동산을 리용한 투 기와 협잡행위를 하여 모 은 자금으로 사리사욕과 도 없는 움막집, 판자집 하고있다. 아닌 《집》에서 불편하고 고통스럽게 생

활하고있다고 한다. 남조선의 언론들도 《우

동산 (투자자) 들의 모임이 다.》라고 평하면서 《이 런 사람들이 세우는 부 동산정책이 누구를 위한 것이겠는지는 불보듯 뻔 하다.》, 《부동산을 사리 사욕과 치부를 위한 수단 으로 삼고 부동산투기와 협잡행위로 누리는 저들 호화로운 생활을 누리고 의 호화방탕한 생활을 결 있으며 이와 반면에 절대 코 인민들을 위해 버리겠 다수의 근로대중은 제 집 다고 하는 부동산소유자

《정부》관료, 《국회》의 원을 비롯한 고위공직자 들과 정치인들이 《말 따

가 아니라 하루라도 빨리 행동으로 《부동산정책의 신뢰를 증명》할것을 요구

引

하고있다.

《미래통합당》을 비롯 한 보수패거리들은 민심 의 정당한 요구를 한사코 외면하고 《개인재산권침 해》라고 우겨대면서 절대 수용할수 없다고 강변하 고있다.

이 없어 세방살이와 주소 는 하나도 없다.》고 비난 은 상관없이 저들의 돈 극소수 특권층을 위한 사 벌이만 잘되면 그만이라 회, 평범한 인민들은 제 롯한 보수패거리들의 행 태가 이제는 민심을 우 롱하고 모독하는 단계를 준다. 리의 정치권과 고위공직자 로, 행동 따로》식의 행태 넘어섰다는것을 보여주고

하기에 남조선 각계층 속에서는 《〈미래통합당〉 의 다주택자 의원은 41명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이다.》, 《그런데도 〈미 래통합당〉의 의원들은 다 주택처분에 대해 (반헌 법적발상) 이라고 반발했 다.》고 하면서 보수패거 리들을 비난하고있다.

남조선에는 《한생 내 집 마련이 꿈》이라는 말 이것은 인민들의 생활 이 있는데 이것은 일부 집을 마련할 하는 사회가 남조선이라 는것을 직관적으로 보여

일본의 과거죄악

일본은 력사적으로 죄많 은 나라, 랍치벆죄의 왕국 이다.

오래전부터 타민족에 대한 랍치와 로략질을 일삼으면서 생존해왔으며 랍치를 중요한 국책으로 삼아온것이 일본 이다

랍치에 이골이 난 일본 이 무력으로 조선을 강점하 고 관권과 군권을 발동하여 감행한 조선인청장년들에 대 한 랍치와 유괴, 강제련행 은 그 수법과 야만성에서 중 세기에 벌어졌던 노예사냥에 결코 짝지지 않는 특대형범 죄였다.

이것은 조선에 대한 침략 과 략탈정책의 직접적집행자 였던 조선총독부의 재무국장 미주다 나오히로가 실토한 내 용을 보아도 잘 알수 있다.

《일본에서는 석탄을 캐는 사람이 필요하였다. 5 000만t 의 석탄을 캐지 않으면 안되 였는데 그의 60%는 조선사 람들이 하였으며 항만축조와 군항을 만든것도 조선사람들 이였다.》

중일전쟁을 도발하고 계단 식으로 확대해나가면서 일제 는 병력과 로동력의 결핍에 직면하게 되였다. 전선이 확 본사기자 소모도 커졌던것이다.

급해맞은 일제는 부족되는 병력과 로동력을 조선에서 충 당하려 하였다.

일제는 《국가총동원법》, 《국민징용령》, 《장년전원 에 대한 징용령》, 《학도근 로령》 등 각종 악법들을 련 이어 조작하고 조선청장년들 을 직업이나 나이, 성별에 관 계없이 랍치, 유괴, 강제련행 하여 죽음의 전장과 고역장 들에 내몰았다.

일제가 조선인강제련행에 《모집》의 외피를 씌워놓았 지만 그것은 철두철미 노예 사냥이였으며 관권과 군력이 개입된 로골적이고 규모가 큰 범죄행위였다.

당시 조선총독부는 이른바 《전시로력동원계획》에 따르 는 《인력공출》을 보장하기 위해 만든 《알선요강》에 근 거하여 《조선로무협회》를 만들어내고 총독부내에 그 본부를, 각 도에는 지부를, 각 부, 군, 도(섬)에는 분회 를 두는 등 조직망을 전국각 지에 거미줄처럼 늘여놓고 조 선청장년들을 닥치는대로 강 제련행해갔다.

당시 조선인강제련행에 나 장 가혹한것은 로무의 징용이 대되는것만큼 인적 및 물적 였다. 전쟁이 점차 가렬해짐 에 따라 … 로무징용자의 할

당이 상당히 엄하게 되였다. 납득시켜서 응모하게 하려고 해서는 도저히 예정수자를 채 우지 못하게 되였다. 그래서 군청이나 면사무소에서 로무 계원이 깊은 밤이나 이른새벽 에 남정들이 자고있는 집을 갑자기 습격하거나 혹은 논 밭에서 한창 일하고있는 때에 트럭을 들이대고 거리낌없이 하면서 《푸른색, 붉은색옷 오늘까지도 반공화국적대시 잡아갔다. 그 다음에는 대오 를 편성해서 혹가이도나 규슈 의 탄광들에 보냈다. 그렇게 해야 책임을 다한다고 하면서 란폭한짓들을 하였다.》고 중 언하였다.

일본에서 발간된 한 출판 물도 《…1939년에 〈징용령〉이 발

동되여 불과 1년 사이에 40만명이 상을 련행하였다 고 한다. 1945년의 패전당시까지 도대 체 얼마나 련행되 였는지는 아직 밝 힐수 없다.》고 까 밝혔다.

이렇게 끌고간 조선사람들은 광 산, 탄광, 발전소 언제공사장 등에 배치하고 짐승처럼 부려먹었다.

조선사람들을 일

본인죄수들보다 더 심하게 학대한것만 보아도 일제의 비 인간성과 민족멸시사상이 얼 마나 농후하였는가를 잘 알 수 있다.

이에 대해 어느 한 일본인 은 다까시로해군공장건설장 람들을 일본인죄수들과 비교 선인들에 비해본다면 식의주, 로동조건 등 모든 면에서 훨 씬 월등하였다. 조선사람들 은 언제나 발가벗고 일하였 으며 땀을 닦을 수건도 없었 다. 조선사람들은 노예들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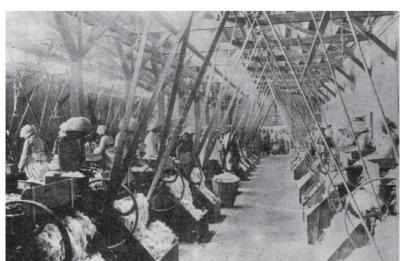
였다.》고 실토하였다.

이처럼 일제식민지통치시기 감행된 랍치와 련행, 집단적학 살과 같은 극악한 범죄행위는 우리 민족에게 영원히 아물수 없는 상처와 원한을 남겼다.

그럮에도 불구하고 랍치 에 강제련행되였던 조선사 의 진범인인 일본은 지난날 의 범죄는 아랑곳하지 않고 을 입은 일본인죄수들은 조 책동에 열을 올리면서 도적 이 매를 드는 격으로 놀아 대고있다.

이것은 죄악에 죄악을 덧 쌓는 행위로서 반드시 그 대 가를 치르게 될것이다.

리 훈 혁



오사까 가시와다방직공장에서 노예로동을 강요당하는 조선녀성들

图合의 憨희를 阳계주는 지해절토역 찾 아 서 ❖

평양의 려명거리입구에는 가 없다. 수도시민들의 교통상편의 를 적극 도모해주고있는 지 전승역이 자리 잡고있다. 최근에 이 전승 역도 새 세기의 요구에 맞 게 더욱 현대적으로 개건되 여 오가는 길손들을 반겨주 고있다.

지상역사의 흰 지붕을 떠 받치고있는 붉은색의 기둥 도 품위가 있고 천정과 벽 면이 부각장식으로 되여있는 지상역사의 내부도 흠잡을데

밤하늘가에 터져오르는 축 포를 형상한 천정조명장식은 전승의 그 환희로왔던 축포 인듯싶다. 조국해방전쟁에서 위훈을 세운 용사들에게 안 겨주는 꽃보라인가 크고작 은 별찌모양들이 새겨진 계 단승강기의 벽면들도 이채를 띠고있다.

각종 사진작품들과 조명 등으로 더욱 현란하고 뜻이 있게 꾸려진 지하련결복도구 간을 지나면 지하전동차를 타는 역홈이 나진다. 중심벽면의 대형벽화는 절세위인의 현명한 령도아래 조국해방전쟁에서 빛나는 승 리를 이룩한 인민의 환희와

긍지를 격동속에 돌이켜보게

해주고있다. 지하홀 기둥들에는 전화의 나날 하나밖에 없는 조국을 위하여 둘도 없는 생명을 아 낌없이 바쳐싸운 영웅전사들 의 모습들이 새겨져있다.

지하철도역구내의 그 어디 에서나 전승의 력사가 살아

빛나는 전승역. 어찌 지나간 이야기라고만

하라. 공화국의 력사는 전승 의 축포가 오른 이후에도 적 대세력들과의 총포성없는 대 결전에서 런승만을 이룩해온 긍지높은 나날들이다. 승리 의 빛나는 전통은 오늘도 위대한 령장의 손길아래 면 면히 이어지고 찬란한 래일 을 앞당겨오고있으니 위인을 모시여 언제나 강하고 이기

는 조선이다. 정면돌파전의 자랑찬 승전

고를 울리며 사람들은 출근 길에 이 지하철도역사에 어서고 보람찬 하루일을 낸 자랑안고 기쁨속에 이 사안에 다시 들어서군 한다.

지하철도 전승역은 말그대 로 위대한 년대의 승리자들 과 그 넋을 이어 승리의 력 사를 펼쳐가는 오늘의 세대 가 만나는 곳이다.

그래서 오가는 사람들의 표정과 발걸음도 더욱 환희롭 고 씩씩하게 안겨온다.

본사기자 김 철

중앙위원회 정치국 확대회의에서는 인민들의 생활상편 리를 최우선시하는 조선로동당의 건설 정책의 요구에 맞게 평양시와 지방의 살 림집건설을 다그치 기 위한 대책적문제 들이 토의되였다. 이에 따라 공화국 의 각지에서 살림집

지난 2월에 진 행된 조선로동당

건설이 본격적으 로 추진되고있다. ■ 사지연시꾸리기 3단 계 공사계획에 따라 올해에 들어와 현재 까지 백수십동의 살 림집골조공사가 결 속된 소식이 전해지 고 함경남도 허천군 신홍로동자구의 광

산마을에 수십동에 수백세대의 살림집 이 마련되여 산골마 을에 행복한 도시생 활이 《이사》 왔다 는 소문이 퍼졌다. 평양국제비행장주

변에 1 000여세대의 살림집을 일떠세우 는 공사가 본격적으 로 벌어지고있으며 평안북도 룡천군을 비롯한 여러 지방에

서도 많은 살림집들을 건설 하고있다. 이렇게 건설되는 살림집들

은 모두 국가가 인민들에게 무상으로 안겨주고있으며 국 가부담에 의한 살림집보장원

되고있다.

새도 둥지가 있어야 깃을 편다고 사람이 살아가자면 보금자리가 있어야 한다. 공화국에서는 은하과학

자거리, 위성과학자주택지 구, 미래과학자거리, 려명거 리를 비롯한 현대적인 살림 집들에서 평범한 교육자, 과 학자들이 행복의 보금자리를 폈고 도처에 일떠서는 문화 주택들도 로동자, 농민, 사 무원들에게 우선적으로 차례 지고있다.

이것은 너무도 평범한 일이 기에 새 살림집의 문패에 자 기의 이름을 보란듯이 새기 고 살면서도 그 복이 얼마나 큰것인지 다는 느끼지 못하 는 사람들도 많다.

려명거리에서 살고있는 리 옥금녀성은 새집들이할 때 외 국인들이 자기 집을 방문하 였던 일을 상기하면서 그들이 자기네 나라에서 이만한 집을 쓰고살려면 수십만US\$를 들 여야 한다고 하였다고, 그 말 을 듣고 눈이 휘둥그래졌었다 고 웃으며 말하였다.

《이런 희한한 살림집에서 평범한 근로자들이, 그것도 돈 한푼 내지 않고 살고있 다니 참으로 믿기 어렵다.》 《궁궐같은 살림집에서 사 는 조선사람들이 부럽다.》

이런 찬탄의 목소리들은 려명거리에서만 울려나온것

이 아니다 창전거리와 은하과학자거 리, 위성과학자주택지구, 삼

현대적인 새 거리, 새 살림 집들에서 근로자들이 행복하 게 살고있는 모습을 보며 세 상사람들은 부러움을 금치

못하였다. 이러한 현실은 돈이 모든것 을 지배하는 자본주의사회에서

는 상상조차 할수 없는 일이다. 세상을 둘러보면 제나름의 화려함과 문명을 뽐내는 거 리와 건물들이 적지 않다. 하지만 돈없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한갖 그림의 뗙에 불 과하다.

남조선에서도 살림집문제 가 갈수록 심각해지고있다고

한 언론이 전한데 의하면 지난 6월 22일을 기준으로 경 기도 김포시의 아빠트값이 전 주보다 1.88% 오른것을 비롯 하여 전 지역에서 또다시 집 값이 폭등하는 《풍선효과》 현상이 나타났다고 한다.

제 집을 마련하는것이 너 무 힘들어 청년들속에서 련 애, 결혼, 해산을 포기하는 《3포세대》로도 모자라 집 을 포기하고 삶자체를 포기 하는 《5포세대》, 《삶포세 대》가 날로 늘어나고있는 곳 이 남조선이다.

반면에 고위공직자들속에 서는 호화주택을 여러채씩이 나 사들여 재산을 불구고 사 치한 생활을 추구하고있다.

집걱정을 모르고 사는 사 람들과 《내 집 마련이 꿈》 인 사람들, 판이한 두 실상 은 참으로 많은것을 시사해











早리 多梦,早리 제章

나라의 신발공업부문에 서 전형단위, 표준공장으 로 되고있는 류원신발공장 에서 생산한 각종 운동신 발들이 사람들속에서 인기 가 높다.

이곳 신발공장에서는 도 안설계로부터 완성에 이르 기까지의 생산공정은 물 론 현대적인 검측설비들 갖추어놓고 신발의 질 을 을 높은 수준에서 보장하 고있다.

성에 맞게 편리하면서도 맵

시있고 가벼울뿐아니라 유 연하고 통기가 잘되여 위생 성보장에 좋은 여러가지 일 반운동신발들을 개발생산하

공장에서는 새 제품개빌 경쟁의 불길을 일으켜 종목 별 전문체육신발들과 함께 년령별, 대상별, 직업별투

고 가벼운 류원신발공장의 운동신발들에 대한 호평이 자자하다. 본사기자

서는 우리 사람들의 체질적

특성에 맞으면서도 질이 좋



더 밝고 아름다운것을 지 향하는 오늘의 세계, 나날 이 윤택하고 문명해지는 우 생활. 보다 좋아질 래 일을 설계하는데서 산업미술 의 역할은 자못 크다.

조선산업미술창작사에는 새롭고 특색있는 명도안들 을 창작하여 경제건설과 인 민생활향상에서 한몫 단단 히 하는 재능있는 창작가들

《통일신보》가 만난 사람들

李是够到

이 많다. 그들속에는 착상의 명수, 도안창작의 1번수로 소

문난 천영일창작가도 있다.

명도안으로 되기까지

니다.》

기자가 천영일창작가에 대 해 알게 된것은 얼마전 중앙 산업미술국 전시회장을

찾았을 때였다. 새형의 무궤도 전차형태도안, 5t급화물자동 차형태도안. 지하전동차 1호형태도안, 삼지연감자가 루생산공장마 크도안, 릉라 곱등어관마크 도안, 평양기초 식품공장마크도

안, 아동놀이장형

성안을 비롯하여 전시 된 상표도안, 광고도안, 마크 도안들을 깊은 감흥속에 돌 아보던 기자는 무척 인상깊 은, 흩날리는 말갈기를 형상 한 미림승마구락부마크도안 앞에서 걸음을 멈추었다.

조선화단붓질로 달리는 밀 의 운동감을 박력있게 형상 한 미림승마구락부마크도안 은 간결성과 집중성, 상징성 을 잘 보장한것으로 하여 볼 수록 경탄을 자아냈다. 안내 하던 일군이 지난 시기 전 국산업미술전시회에서 1등을 한 마크도안이라고 하면서 그에 대해 들려주었다.

《당시 현상모집으로 출품 된 이 도안은 심의원들의 도 식적인 안목으로 하여 별다 른 관심을 끌지 못하였었습 니다. 그때 당선된 24점의 미림승마구락부마크도안들 로부터 두번째순위에 있었습

> 락부마크도안들을 지 도해주시던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는 그 마크도안 을 보시고 도안 이 현대감이 나 면서도 민족적 특성이 살아나 게 단붓질수법

> 그러던 어느날 미림승마구

으로 잘 형상했 다고 하시면서 미 림승마구락부마크 로 선정해주시는 크 나큰 믿음을 안겨주시

그후에도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마크를 새긴 승 마복을 보아주시면서 도안은 많은 사람들과 친숙해졌다고 새롭고 특색있는 명도안으로 이렇게 간단하면서도 대상의

본질적특성을 상징적으로 잘 서 상품을 파악하지 못하고 살리면서 주제가 명백하고 한눈에 안겨오게 창작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이렇게 되여 옷에 새기면 승마복을 상징하게 되고 보 급실에 불이면 승마지식보급 실을 상징할수 있게 집약화 되고 통속화된 이 마크도안 이 명도안으로 세상에 태여 날수 있었다는것이였다.

안을 찾아주신것을 계기로 산업미술창작가들과 일군들 의 안목과 일본새에서는 혁 신적인 변화가 일어났다. … 이야기에 심취될수록 경애하는 원수님께 기쁨을 드린 창작가가 어떤 사람인

안내하던 일군은 그가 바 로 도안창작의 능수로 알려 진 조선산업미술창작사 상표 도안단의 천영일창작가라고, 그의 얼굴을 아는 사람은 많 지 않아도 그가 도안한 상 표도안들과 마크도안들은 수 말해주었다.

지 알고싶었다.

새롭고 기발한 착상으로

기자는 중앙산업미술국과 한 청사에 위치한 조선산업 미술창작사에서 천영일창작 가를 만났다.

지성미가 엿보이는 60대 중엽의 창작가, 세월은 그 의 눈가에 주름을 새겨주었 어도 온몸에서는 지칠줄 모 르는 창작적열정과 패기가 넘

치고있었다. … 철도설계가의 가정에서 태 여난 천영일은 어려서부터 남 달리 그림그리기를 좋아하였 다고 한다. 중학시절에 그는 중에서 이 도안은 마지막으 간결한 묘사로 사물의 본질 을 정확히 표현할줄 아는 뛰 여난 재능으로 미술전문가들 을 놀래웠다.

그후 평양미술대학 산업미 술학부에서 배움의 나래를 꽃피운 그는 전문적인 상표 도안창작의 길에 들어서게 되였다.

상표는 상품의 얼굴이다. 훌륭한 상표는 상품의 문화 성과 예술성을 높여준다.

허나 창작초시기 그가 내놓 은 상표도안들은 환영을 받 지 못하였다. 현실에 도입되 지 못한 상표도안들을 보면

창작하는 도안은 성공할수 없다는것을 뼈저리게 느끼였 다고 하면서 그는 말하였다. 《상품에 대해 안다는것,

그것은 상품의 모양과 색갈. 재료와 속성, 상품의 사회적 영향력, 세계적발전추세에 이 르기까지 방대한 령역을 포 괄하였습니다. 상표도안가는 경제전문가, 대중심리전문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명도 가 되여야 했고 기발한 착상 력과 독특한 구상력이 있어 야 했습니다.》

> 그때부터 그는 인민대학습 당과 중앙과학기술통보사 등 여러곳을 오가며 상품학, 규 격학, 심리학, 인쇄공학, 재 료학, 위생학을 비롯한 많은 분야의 책들을 파고들었다.

우수하게 평가된 도안들에 서 대상의 특성에 맞는 다양 한 형상수법들과 창작기법들 을 연구하는 과정에 남다른 도안감각과 착상력을 소유하 게 되였다.

-하나의 도안을 창작해도 만들자.

이것은 그가 도안창작에서 견지하고있는 원칙으로 되고 있다.

《상표도안이나 마크도안 창작은 독특한 수법으로 사 람들의 심리적충동을 불러일 으켜야 하는것만큼 결코 쉬 운 일이 아닙니다. 하기에 새 도안을 창작할 때마다 많은 고심을 하군 합니다.》

그는 하나의 도안을 창작 하기 위해 무려 수백번의 모 의를 거듭한다고 한다. 다방면적인 지식과 진취적

인 사색, 풍부한 상상력이 결합될 때 명도안이 나올수 있다는것이 그의 주장이다. 유명한 대동강맥주상표도 안과 들쭉술상표도안, 중앙 동물원마크도안, 원산갈마해 안관광지구마크도안을 비롯 하여 그가 창작한 수많은 명 도안들은 이런 불같은 창작

《중앙동물원마크도안을 창작할 때 위엄있는 호랑이

적열정과 탐구, 기발한 착상 이 낳은 산물이다.

모습을 형상해야 한다고 주 장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저는 우리 인민들의 즐거운 문화정서생활기지, 우리 아 이들이 특별히 좋아하는 중 앙동물원을 상징하는 마크는 밝은 양상으로 되여야 한다

는 착상에 기초하여 귀엽게

런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대동강맥주병에 붙은 상 표를 보았을것입니다. 보는 사람들마다 경탄을 금치 못 웃는 깜찍한 호랑이를 형상 하였습니다.》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마크

도안을 창작할 때에도 그는 갈매기 날아예는 푸르른 바 다와 백사장, 돛배 등 몇가 지 요소로 해수욕장의 특성 을 재치있게 집약화하여 형 상하였다.

이것이 어찌 그의 재능이 가 져온 성공의 열매라고 하랴. 보석도 빚을 주어야 그 아름다움을 나타낼수 있듯 이 인간의 재능도 키워주고 품어주는 사랑의 손길이 있 어 그 가치가 더욱 빛나는

비범한 손길에 이끌려

천영일창작가는 신인창작 가들이나 사람들로부터 지금 까지 숱한 명도안들을 내놓 았는데 어떻게 그렇듯 기발 한 착상을 하군 하는지 그 묘리를 알려달라는 청을 듣 군 할 때가 많다고, 착상의 묘리는 결코 저절로 이루어지 는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이

하는 대동강맥주상표에는 뜻

깊은 사연이 담겨져있습니다. 주체97(2008)년 4월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우리들 이 창작한 대동강맥주상표도 안을 하나하나 보아주시면서 맥주병에 붙이는 상표의 테 두리는 병색갈과 잘 어울리 면서 잘 알리게 하여야 한 다고, 맥주상표는 배경이 좋 아야 하며 맥주상표에는 공 장마크를 그려넣어야 한다고,

상표는 은근하면서도 보기

좋아야 하며 인상적이여야 한

영일창작가는 자책을 금할수 없었다고 한다. 거기에는 그 안도 있었던것이다. 하여 그는 대동강맥주상 표도안을 새롭게 창작하리라 마음먹고 달라붙었다.

그 사실을 전해들은

그는 사색을 거듭하면서 대동강맥주라는 이름과 청 류다리를 부각시키고 바탕색 을 검은색과 록색으로 강하 게 대조를 주는 방법으로 대

동강맥주상표를 형상하였다. 그후 또다시 대동강맥주상 표도안들을 보아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번에 좋다고 선정된 대동강맥주상표가운데 흰색으로 대동강맥주라고 쓴 것이 있는데 검은색으로 써넣 으면 더 좋겠다고, 그리고 공 장마크는 도안중심에 형상하 여야 한다고 일깨워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가르쳐주신대로 상표도안의 로 글을 쓰고 흰테두리를 두 불타는 창작열의에 있다고. 르니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창작가들도 수정한 대동강맥 주상표도안을 보고 야 하고 탄성을 올렸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새로운 도 안을 창작할 때마다 잊지 못 할 대동강맥주상표도안을 되

새겨보군 하였다고 한다.

그러면 창작가들을 믿어주고 내세워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높은 뜻이 어려오고 인민들에 게 기쁨을 주는 새롭고 특색 있는 명도안을 만들어내리라는 의지를 가다듬으며 새로운 착 상으로 온몸을 불태운 그였다. 그뿐이 아니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그 가 창작한 중앙동물원마크도 가 창작한 대동강맥주상표도 안과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 마크도안을 비롯한 여러 도 안들을 목소 보아주시며 창 작적안목을 틔워주시였다.

《저의 눈앞에는 도안창작 의 나날에 누구도 생각지 못 한 명안으로 걸음걸음 손잡 아 이끌어주신 절세위인들의 자애로운 영상이 뜨겁게 안 겨옵니다. 저에게 무슨 타 고난 재능이 있어 착상의 명수가 될수 있었겠습니까. 그 착상의 날개는 위대한 장군님께서와 우리 원수님께서 달아주신것입니다.》

하기에 그는 신인창작가들 에게 이렇게 말해주군 한다.

-착상의 묘리, 그것은 믿어주고 내세워주시는 절세위인들의 숭고한 뜻을 심 장에 새겨안고 시대가 바라 는 높이에서 매일 매 순간 바탕색과 어울리게 검은색으 탐구와 사색으로 이어가는

> 오늘도 그는 시대가 요구하 는 명도안들을 더 많이 창작 할 애국의 마음을 안고 더욱 부강할 조국의 래일, 더욱 행 복해질 생활의 모습을 도안 에 담아가고있다.

본사기자 홍범식



粤00 少足分离경

가 우거진 곳이라고 하여 류 경이라고 불러왔다.

픗치수려한 보통강반에 가

강물우에서 노니는 한쌍

원앙새를 바라보면서 버

면 수양버들 휘늘어진 풍경 감을듯 휘늘어진 버들가

정서는 참으로 매혹적이다. 이런 풍치가 있어 뭇새들도 다투어 날아와 깃을 내리는 것이 아닌가싶다.

인민의 강, 락원의 강으 로 전변된 보통강반의 버드 나무를 따라 걷느라면 평 양체육관, 청류관의 자태와 만수교고기

사기지 온다.

버드나무는 빨리 자라고 물기에 견디는 성질이 강하 므로 강기슭과 개울기슭에 보호숲으로 심으며 가로수로 도 심고있다.

재질이 고르롭고 튐성이 있 으며 연하고 가벼운 버드나

원료로 쓰이며 속껍질과 꽃 은 사람들의 건강에 유익한 약을 제조하는데 리용된다. 세기와 세기를 이어오며 평 양의 자랑을 고이 간직하고 있는 버드나무에는 잊지 못

할 사연이 깃들어있다. 인민들이 원하고 인민들이 좋다고 하면 다 좋은것이라

무를 심게 하여주신 위대한 김일성주석의 높은 뜻에 의 하여 평양에는 민족성짙은 《버드나무거리》라는 거리이 름도 생겨나게 되였다.

그날의 뜻깊은 사연을 전 하며 평양의 버드나무들은 푸르러 설레이고있다. 본사기자 리철 민

이것만 놓고보아도 우리 선 조들이 오래전부터 단고기장 을 삼복철보신탕으로, 건강 음식으로 즐겨 먹어왔다는것

지방 4.1g, 칼시움 들어있으며 닭, 돼 지, 소, 오리고기에 비하여 비타민 A, B가 훨씬 많다. 또한 소화흡수가 잘되고 혈 기를 왕성하게 하며 특히 여 름철에 땀을 많이 흘러 생기 는 탈수현상과 빈혈 등을 예

教上

시원한 랭면?… 물론 그것도

하지만 삼복철에는 뭐니뭐 니해도 땀을 철철 흘리며 먹 뉴월 단고기장물은 발등에 는 뜨끈한 단고기장이상 없 떨어져도 약이 된다.》는 속 다고 해야 할것이다.

삼복더위에 단고기장을 먹 는것은 우리 민족의 오랜 풍 습이다.

옳다.

에는 《단고기는 성질이 덥 고 독이 없다. 오장을 편안 비장과 위를 튼튼하게 하고 골수를 맑게 하며 머리, 무 릎을 덥게 하여 아픔을 멎 게 하고 양기를 돋군다.》라 고 서술되여있다. 《동국세시 기》에도 단고기국밥에 양념 을 넣고 밥을 말아서 땀흘러 먹으면 더위를 물리치고 허약 한것을 보강할수 있어 삼복 중의 가장 좋은 음식이라고 기록되여있다.

을 알수 있다.

단고기 100g에는 단백질

삼복철의 영양음식으로서는

그저그만으로 알려져있다. 이런데로부터 단고기장을 보신탕으로 일러왔으며 《오

담도 나왔다. 공화국에는 평양단고기집과 신흥단고기집, 대동강구역종 합식당 문흥단고기집, 함경북 도 경성군의 경성단고기집을 비롯하여 민족의 향취넘치는 단고기장과 갖가지 단고기료 리를 잘 만들어 널리 알려진

단고기전문식당들이 많다. 삼복철인 요즘 단고기료리 를 전문으로 하는 식당들은 찾아오는 사람들로 런일 흥 성이고있다.

창팡음식점거리에 위치한 단고기집에서도 단고기장을 잘 만들어 호평을 받고있다. 이곳에서 만드는 단고기장은 느끼하지 않으면서 산뜻한것 이 특징이다

우리와 만난 신경란책임자 는 단고기장을 맛있게 끓이 자면 단고기피를 깨끗이 뽑 아 비린내를 없애야 한다고, 단고기를 지나치게 푹 삶거 설게 삶으면 제맛이 나 지 않는다고 말하였다. 단고 기장의 국물은 투명하면서도 갖풀이 생길 정도로 농도가

고기를 무드기 담은 단고기 등심찜, 단고기갈비찜, 단고 기위쌈 등 갖가지 단고기료 리들은 보기만 해도 군침을 돌게 하고있다.

《삼복철엔 단고기장이 제 일이라니까.》

《뜨끈한 단고기장에 조 밥을 말아 땀흘리며 먹고나 니 시원하고 상쾌한감이 든 다.》…

김이 문문 나는 단고기장 을 마주한 손님들이 이런 이 야기를 주고받으며 흥건하게 내배인 땀을 연신 닦아낸다. 예로부터 삼복철의 보신탕으

로 일러온 단고기장을 맛있게 드는 사람들의 모습은 오늘도 면면히 이어지는 우수한 민속 전통의 일단을 엿보게 한다. 본사기자 김 춘 경





전연기원을

초하여 1959년에 참대모를 순

학리 칠성고개기슭에 29그루

(0.2정보), 삼일포리소재지

뒤산기슭에 27<u>그</u>루(0.2정보)

고성참대밭은 나라의 귀중

한 재보로서 분포와 생태, 재

배연구에서 중요한 학술적의

의를 가지는 천연기념물이다.

금강산의 외금강 구룡연구

역 신계동입구에 퍼져있으며

그 면적은 약 18정보이다.

씩 각각 나누어 심었다.

-고성참대발

고성참대는 삼일포의 뒤산 기슭과 순학리 칠성고개기슭 에 퍼져있다.

참대는 벼과에 속하는 한싹 잎식물이며 꽃은 60∼120년만

제일 큰 참대의 높이는 16m, 뿌리목둘레는 58cm, 가 슴높이둘레는 55cm이며 나무 갓너비는 1.8m이다.

고성일대의 자연지리적조건 을 과학적으로 타산한데 기

-음식이 <u>뜨거울</u> 때 먹는 이몸이 헐고 알레르기성이앓 는 습관이 있다. 습성

일부

들은 뜨거운 건강네 음식을 먹기 좋아하는데 이 습관은 몸 에 좋지 않다. 뜨거운 음식 을 먹을 때 입안점막이 충혈 되고 손상을 입기때문에 입

안을 보호하는 기능이 파괴

된다. 뜨거운 음식을 먹으면

식생활습성 -고단백음식물을 먹은 후 인차 차를 마시는 습성

일부 사람들은 고기와 닭 닌산단백을 합성하여 밸의 알, 수산물 등 고단백음식물 을 먹은 후 소화를 촉진시킨 다고 하면서 인차 차를 마시

소나무들로 울창한 숲을 이 루고있다. 는 30m이고 뿌리목둘레는

되여있는데 크고 오래 자란

나무와 그밑에서 자라고있는

각이한 크기와 나이를 가진

3.2m, 가슴높이둘레는 3m이 며 나무갓너비는 13m이다.

창터소나무무리는 금강산의 풍치를 돋구어주는 자연풍치 림으로 보호관리되고있다.

는

본사기자

사실 이러한 습관은 좋지 많은 량 의 탄닌산이 단백질과 화 합하여 수렴성을 가진 탄 꿈틀운동을 굼뜨게 하기때

민족회화계의 재사들과 그 유산

동물화가

리암은 16세기를 대표하 는 재능있는 동물화가의 한 사람이다.

그는 꽃과 새, 짐승을 잘 그렀는데 그가운데서도 개 와 고양이를 뛰여나게 잘 그 린것으로 널리 알려져있다.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고양이와 강아지》, 《나 무에 오른 고양이》, 《한쌍 의 기러기》 등이 전해지고

《나무에 오른 고양이》는 《고양이와 강아지》와 쌍폭 을 이루고있는 그림이다.

성난 강아지에게 쫓긴 고 양이는 재빠르게 나무우로 뛰여올라가고 고양이를 놓 쳐버린 강아지는 더는 어쩌 지 못하고 고개를 갸웃하고 앉아 나무우를 바라보고있 다. 그 순간 나무가지에 앉 아있던 참새들이 놀라서 날 아나고 나무아래로는 새털 을 입에 문 다른 한마리의 강아지가 자기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듯 어디론가

습성과 동작을 깊이 파악 의 화풍을 잘 보여주고있 다. 작품은 당시의 동물화 들중에서 가장 우수한 작

도 리암의 동물화들에서 보

리 민족적이며 향토감이 짙 그렸을뿐아니라 화폭마 다에 동심적이며 명랑하고 해학적인 분위기가 흘러넘 치게 함으로써 당대의 화조 령모도분야에서 새로운 경 지를 개척하는데 이바지하 였다.

동물화 《나무에 오른 고양이》 본사기자

려나?》



(리암 작)

방구리를 더 가져오게 했다.

어지간히 술기운이 돌아 거

나해졌을 때 정도령은 마침

《대체 무슨 청이요?》

《여보게! 내 자네한테 청 할 일이 하나 있는데 들어주

《글쎄 들어주겠는지 그것

《아, 신사님이 날 그만큼

내 본심을 터놓았다.

부터 다짐하게.》

❖ 악하면 악한 끝이 있 고 착하면 착한 끝이 있다. 악하고 착한데는 그 결 과가 차례짐을 이르는 말. ◈ 말 단 집에 장이 쓰다.

·가정에 말이 많으면 살 림이 잘 안된다는 뜻으로 이르는 말.

·말만 번지르르하게 하는 사람을 욕으로 이르는 말. ❖ 사위는 백년손이요,

며느리는 종신식구이다. 사위는 언제나 대하기 어 렵고 남의 사람이지만 며 느리는 곧 제 식구, 자기 집사람이 됨을 이르는 말.

지고서

한사람이 장기를 좋아하는 자기 친구에게 물었다. 《자네 오늘 그 친구와 장 기를 몇판 두었나?》

《세판.》 《그래 몇판 이겼나?》

《첫판은 내가 이겨주지 않았고 두번째 판은 그가 져 주지 않았어. 그래 세번째 판은 비기자고 했는데 그가 끝내 비겨주어야지?》

《그럼 세판을 다?…》

사화

노루친 몽둥이 3년 우리다

리 유 근, 그림 채 대 성

문이다.

정도령은 아무것도 눈치채 지 못한척 하며 봉사가 묻어 놓은 눈무지쪽으로 슬금슬 금 내려갔다.

《거기 좀 서시우!》 이제 더는 숨박곡질할 여 지가 없게 되였다는것을 알 아차린 봉사는 황급히 그의 팔소매를 붙들었다.

《난 아까부터 당신이 다 심이나 함께 듭시다. 내 노루 보구 능청을 떤다는걸 알았 고기산적을 만들겠소.》 소.》

《월 말인가?》 정도령은 한번 더 모르는 체 하며 슬쩍 떠보았다.

《월 아직두 딴전을 피우 시우. 내 잘못했소. 자, 이 러지 말구 초막으로 들어가 십시다.》

그제야 정도령은 못이기는 체 하고 그를 따라 초막안 에 들어섰다. 생각과는 딴판 으로 막안은 훈훈했다. 방 한가운데 놓여있는 오지화로 에서는 참숯불이 이글거리고 있었다.

《자네 이거 려묘살이하는 사람같지 않구먼.》

정도령은 기직우에 다리를 내대며 한마디 했다.

조상은 조상이구 아, 산 사 람이야 살아야 하지 않겠 소. …》 봉사는 면구하여 허허 웃

으며 두팔소매를 걷어붙였다. 《우리끼린데 뭘 숨기고 말 하겠소. 마침 점심때두 다 됐으니 오늘 우리 여기서 점

그는 상대의 대답은 들으려 고도 하지 않고 주르르 달려 내려가 눈무지속에서 노루를 파내가지고 올라왔다. 중노 루인데 볼기짝이 터질듯 살 이 졌다. 봉사는 재빨리 장 도를 꺼내 뒤다리 한짝을 뗴 냈다. 그리고는 가죽을 벗기 고 살고기를 얇게 저며 토막 쳤다. 그 다음은 뭐가 없나 사방을 두루 살피다가 가까 운 골짜기로 뛰여가 묵은 싸

그는 곧 저며낸 고기점을 싸리꼬챙이에 꿰고나서 한쪽 구석에 놓여있는 항아리안의 소금 한웅큼을 집어내여 고 루 뿌리고 그 꼬챙이를 화로 포개고 앉아 화로불에 손을 전에 나란히 걸쳐놓았다. 그 야말로 담배 한대 피울 여유

리꼬챙이를 몇대 꺾어왔다.

《그렇게 됐소이다. 죽은 도 안되는 짧은 사이였다. 여 직껏 난봉으로 나돌아다니며 배운짓이 그것이라 솜씨가 여 간 아니였다.

> 마침 반빗아치가 점심을 챙 겨가지고 올라와서 상우에는 노루불고기외에 넙적한 암치 머 긴 문어발, 메추리알볶음 까지 놓여있어 그야말로 산 해의 진미가 다 올랐다.

> 《자, 얼른 나앉으시우.》 봉사는 정도령을 개다리소 반앞으로 이끌었다. 그런 다 음 소금항아리뒤에서 감추어 두었던 술방구리를 꺼냈다.

> 《자네 반주까지 하나?》 정도령은 목젖이 꿀뗙거리 는것을 꾹 참고 짐짓 놀라는 태도를 보였다. 인륜에 어그 러지는노릇을 해서야 되겠느 냐 하는 투이다.

《아아 뭘 자꾸 그러시우? 그래 내 상제몸이라 소주는 안 마시고 탁주요. 탁주야 상제한 레도 권하는 술이 아니요.》 봉사는 커다란 놋대접에다 한가득 술을 따라 먼저 권

했다. 《자, 한잔 쭉 내시우.》 《아니 이거 임자 선친앞 에 죄되는 일이 아닐가?》

정도령은 거듭 사양하는체 하다가 대접을 들어 단숨에 굽을 내였다.

《역시 신사님이 주량이며 노는품이 나와 배짱이 맞소. 허허…》

봉사는 거듭 그의 잔에 술 을 부으며 배심좋게 웃었다. 《그런 말로 날 구슬릴 생 각은 말게. 내가 술은 받아 먹어두 중심은 있는 사람이 야. 자네가 오늘 한 행실은 인륜은 고사하구 금수의 도

에도 어긋나는짓일세.》 《내 그래서 신사님을 이처 럼 깍듯이 존대하는거 아니 요. 한번만 눈감아주우다.》 《아니야. 그럼 내가 자네

선친에게 불칙한 놈으로 되 지 않나. 그만큼 믿고 잘 받 들어달라 부탁하고 가셨는데 이 사실을 그냥 두면 이다음 내 지하에 가서 무슨 면목으 로 자네 부친을 대하겠나?》 《차 이런, 또 엇나가시네. 내 그만큼 비는데두…》

《빈다구 조상을 욕되게 한 불효죄야 어디 가겠나. 아무 래도 자네 문중에 가서 알리 구 조처를 해야 할가보이.》 《정 이러기요?》

봉사는 눈을 부릅뜨며 몸 을 일으켜세웠다. 그러다가 상대방의 얼굴에 비낀 능청 스러운 표정을 보고야 그것이 참이 아니고 건성이란걸 알았 다. 그래도 마음이 안 놓여 한번 더 용서를 빌었다. 《난 신사님이 날 끔찍이 위해준다는걸 알구있소. 자, 내 이렇게 귀잡고 절을 리다.》

봉사는 불시에 두귀를 잡 고 기직우에 넙죽 엎드렸다. 《아니, 이러지 말게.》 정도령은 정말로 놀라 황

황히 그를 붙들어일으켰다. 《내 자네 심정이 가상하 여 이번 일은 나만이 아는 일로 깊숙이 묻어두겠네.》 《글쎄 그러면 그렇겠지.》



봉사는 너무 좋아 입이 함 지박만 해졌다. 아무리 난봉 은 피워도 조상박대하는 불 효막심한 자식이라는 오명은 남기고싶지 않은 그였다.

그들은 뻔질 술잔을 돌리 였다. 둘이 다 술고래여서 그쯤은 끄뗙도 안했다. 지어 반빗아치를 시켜 몰래 술 한 《무슨 청탁이라두?》

《그렇네.》 정도령은 앞에 놓인 술대 접을 비우고 화로전에서 노루 고기산적 한꼬치를 들어 천 천히 씹으며 말을 이었다.

《돈을 좀 취해주게.》 《돈이요? 그러지요. 얼마 면 되겠소?》 **《**한 삼백냥···**》**

《삼백냥이라… 지금은 좀 베찬데…》 봉사는 잠시 눈을 내리깔

았다가 인차 손을 홱 내저 었다 《에라, 그러지요. 내 신

사님을 위해서 무얼 아끼겠 수?》 《고맙네. 내가 이제 전장 을 사겠나 마누라를 얻겠나? 그저 산세나 보아주며 돌아

다니는 놈이 차차 나이드니 육신이 말을 잘 안 듣네그 려. 그래 생각끝에 하늘소나 한마리 사서 타구 다닐가 해 서 그러네.》

《알겠소. 내 이따 반빗아 치를 시켜 우리 댁네에게 이 를레니 가는 걸음에 달래가 지고 가우.》

《자넨 언제 봐야 서글서글 해서 좋단 말이야. 흐흐…》 이번에는 정도령이 입이 뗙 함지가 되여 한바탕 엉치를 들썩거리며 웃었다.

그후에도 정도령은 봉사 가 려막살이를 끝마칠 때까 지 매해 한번씩 찾아와 돈을 루친 몽둥이 3년을 우려먹은 셈이였다.

봉사가 3년상을 마치고 내 려온 그해 여름 정도령은 또 다시 학당골을 찾았다. 그사 이 밀렸던 회포나 나눌가 해 서였다.

걸음 잘 걷는 하늘소를 탄

그는 단숨에 고개마루에 올 라서 동리로 들어가는 길어 구까지 갔다.

그런데 이게 웬 일이냐? 거기에는 기둥에 시뻘건 주 홍칠을 해세운 《효자정문》 이 덩실하니 솟아있는게 아 닌가. 그는 한참이나 어리둥 절하여 서있다가 인차 모든것 을 깨닫고 천천히 고개를 끄

덕이였다. 봉사가 3년을 고스란히 가 짜 러묘살이를 하고 내려온 날 마을향임은 송씨가문이 대대로 조상에게 효도한 전 적을 낱낱이 적어 고을원에 게 알리고 원은 감사에게, 감사는 나라에 청하여 마침 내 《효자정문》을 내리게 했 던것이다.

《허허허. 허허허.》

정도령은 정문 한복판에 높이 써붙인 《효도 효》자 족자문패를 바라보며 한바탕 너털웃음을 내놓았다.

만약 삼강오륜을 제정한 공 자가 다시 살아서 이 사실을 안다면 억이 막혀 두벌죽음 을 했을것이다.

(그러니 속히운 놈두 효자 빌러쓰군 했다. 이를레면 노 구 속인 놈도 효잔 효자겠 다?)

> 정도령은 이렇게 중얼거리 며 정문을 통과할 때 누구 나 말에서 내리게 되여있는 그 《효자정문》으로 뻐젓이 하늘소를 탄채 호기있게 들 어갔다.

집 위

원

회

퍄

주소:평양 통 일 신 보 사 (해외동포여러분의 서면련락주소: 조선평양 국제우편국사서함 제150호) 전화: 책임주필실 366-0732. 편집국 366-0289